

HUFS

BRAND NEW HUFSAN TO LEAD A NEW ERA



Cover Story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Global Issues

무한한 기회의 땅,
미래의 중동에 대비하려면

HUFS Topic

양인집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모교에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Inside HUFS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연차성과평가 최고 등급 '우수' 달성

세계가 원하는 경쟁력, HUFS에서 JUMP!



전세계 다양한 언어 문화 콘텐츠와 첨단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창의융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의 꿈이 자라고 성공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이채원(네덜란드어 22)

조나단 음비(정치외교 20)

김동준(경영 21)



입학안내
02-2173-2500 <https://adms.hufs.ac.kr>



Global HUFS 2023 SPRING Vol. 118

HUFS STORY

- 02 **Cover Story**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 06 **HUFS Interview** 인류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금 1억원 기탁
배동현 BDH 재단 이사장·경영 03
'언어'라는 인생의 무기-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통역
김충환 대한축구협회 소속 통역사·포르투갈어 12
무한 가능성의 발견-'2022 빅콘테스트' 데이터분석리그 대상 수상
QMS428팀 강민석 경영 17 / 박원정 영미문학·문화 20 / 서용원 경영대학원 22 / 이수현 경영 19 / 최효미 독일어통번역 17
- 12 **Inside HUFS**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연차성과평가 최고 등급 '우수' 달성
진로취업지원센터 서울캠퍼스 정용호 팀장 / 정성주 / 부지영, 글로벌캠퍼스 정중훈 팀장 / 변민선 / 한지영
- 16 **Global Memoirs** 건터에서 보낸 특별한 한 주간-'HUFS글로벌 봉사단' 참가 후기 양연필 스페인어 20
- 18 **I am HUFSan** 엄마의 마음으로 전하는 진심 양진숙 후생과
- 20 **Global Issues** 무한한 기회의 땅, 미래의 중동에 대비하려면 유달승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장·중동연구소장

HUFS NEWS

- 24 **HUFS Topics** 양인집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모교에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한국외대,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인증 획득
행정직원 직무수행 관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전달식
시사토론 동아리 노곳메 KBJG팀, KB금융그룹 '2022 KB 솔버톤 대회' 대상
- 28 **HUFS Today**
- 32 **HUFS Academies**
- 35 **HUFS Professors**
- 37 **NEW Professors**
- 38 **HUFS Institutes**
- 40 **HUFS Books**
- 42 **CUFS News**

ALUMNI & DONATION

- 44 **HUFS Alumni**
- 47 **HUFS Donation**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우리 대학은 2월 27일(월) 양캠퍼스 신입생과 학부모를 초청해 '2023학년도 한국외대 신입생 입학식' 행사를 개최했다.

대면 행사로 진행된 입학식 행사는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재학생 축하 공연과 신입생 축하 영상 상영, 기수단 입장, 국민의례, 내빈 소개,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박정운 총장 축사, 양인집 총동문회장 축사, 교가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정운 총장은 축사를 통해 3,858명의 신입생에게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랑스러운 외대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격려하며, “큰 꿈을 꾸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즐기며,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제대로 된 실패의 경험도 해볼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진행된 입학식은 고교 시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신입생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였으며, 한국외대 가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H

U



HUFS INTERVIEW

인류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

배동현 BDH 재단 이사장·경영 03

'언어'라는 인생의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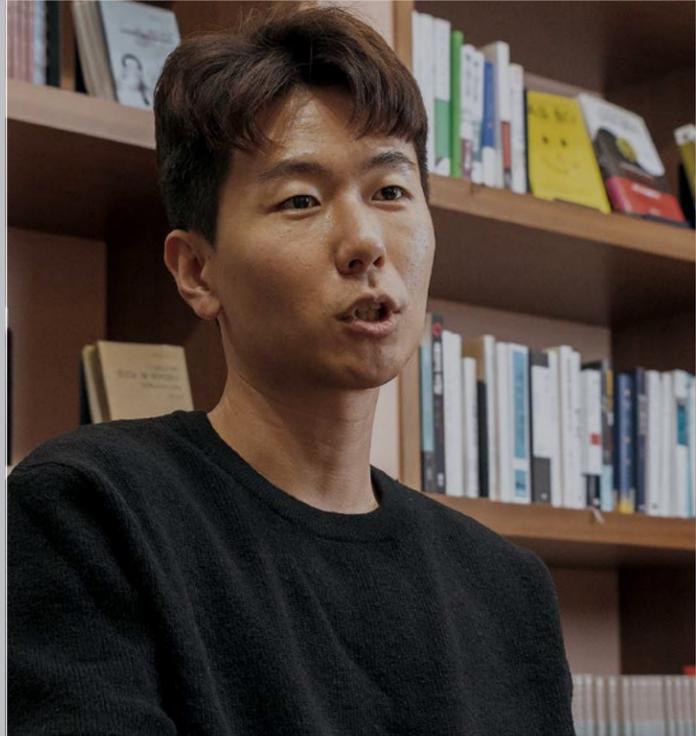
김충환 대한축구협회 소속 통역사·포르투갈어 12

무한 가능성의 발견

QMS428팀

강민석 경영 17 / 박원정 영미문학문화 20 / 서용원 경영대학원 22

이수현 경영 19 / 최효미 독일어통번역 17



F

S



인류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금 1억원 기탁
배동현 BDH 재단 이사장·경영 03

한국외대 동문인 배동현 BDH 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월 19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이 기금은 우리 대학의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배동현 이사장에게 교육기금 기탁 소회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들었다.

● **모교에 교육기금 1억원을 기탁한 소회를 들려주세요.**

우선,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나눔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시대적 인재를 육성하려는 모교의 뜻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제가 모교로부터 받은 배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학교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음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BDH 재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BDH 재단의 목적은 더 나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체육·문화·예술, 교육, 의료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예술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은 인재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며, 의료는 개인과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필연적인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12억명의 장애인의 삶이 소외되지 않게 그들의 의지와 희망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기와 걸어온 길이 궁금합니다.**

2012년 장애인 선수들의 어려운 환경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와 함께한 모든 순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2018년 평창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동계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신의현 선수가 획득했던 역사적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장애인 스포츠와 함께하면서 매순간 예상하지 못한 행복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 신규 장애인 사격팀이 창단될 예정이며, 장애인 노르딕스키팀과 함께 장애인 체육 종합 스포츠단 운영을 앞두고 된 것처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새로운 일들도 기대됩니다.

● **BDH 이사장으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BDH 재단의 여러 사업 중 가장 먼저,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의 고른 번영과 균형 발전 및 패럴림픽 인식 제고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개발 국가의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스포츠 장비와 재정을 후원하고, 장애인 스포츠 유관기구 및 단체 후원과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 우수·신인·은퇴 장애인 선수 지원 및 비장애인 특수 체육 관련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평창에 이어 2024년 파리 하계 패럴림픽대회 선수단장으로 선임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패럴림픽 개최까지 주어질 약 1년 5개월의 시간을 선수단과 함께 훈련부터 대회 참가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선수단이 행복한 환경 속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외대인으로서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이 자랑스러운 외대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길 바라며, '교육과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화, 국제화를 실현하겠다'는 모교의 굳은 의지를 늘 되새겨주길 희망합니다. 이미 많은 외대 동문이 전 세계에서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함께 올라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를 잇고 상호 이해의 증진에 앞장서 활동해주기를 또한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의 고리를 외대인이 이끌어갈 바라며,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나눔과 사회 공헌 활동에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언어’라는 인생의 무기

●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12년 만의 16강’이라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당시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통역사로서 함께했을 텐데 어땠습니까?

4년간 함께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 팀’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결과는 제게 남다른 뿌듯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월드컵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회다 보니 저도 선수들 못지않게 긴장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 더욱 짜릿한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통역사로서 어떤 일을 했으며, 통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통역은 2명이 2개의 파트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저는 훈련할 때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피지컬 파트에서 통역 업무를 맡았습니다. 함께하던 통역사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중반부터는 주로 팀 미팅이나 기자 회견시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통역시에는 파울루 벤투 감독님의 말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단어 하나라도 잘못 전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의도를 잘못 전한 통역은 이슈나 논란이 될 수 있기에 늘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통역사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16강 진출을 확정하고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글이 새겨진 태극기를 들며 화제가 된 순간입니다. 그때 통역사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 벅차도록 커다란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경기에서 졌을 때입니다. 월드컵 경기는 아니었는데, 지난 4년간 많은 경기를 하면서 ‘한일전’에서 몇 번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팀 분위기나 여론이 좋지 않아 감정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통역하기도 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가까워서 선수들의 노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쓴소리를 전해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른바 ‘중꺾마’는 지난해 최고의 캐치프레이즈였다. ‘12년 만의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둔 2022년 카타르월드컵 당시, 경기를 뛰는 선수외에도 한 팀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이 있었다. 김충환 통역사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운영팀 통역사로서 힘을 보탤다.

● 파울루 벤투 감독과 그의 가족과도 각별하게 지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님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은 업무 외에 도와드릴 부분이 많았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입국 초반 벤투 감독님의 아내분이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해서 경복궁, 남산, 롯데타워 등을 가이드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 일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 학교 재학 시절 참여했던 동아리 활동 또는 참여했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반데이 란치스’라는 학교 축구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인 작은 동아리입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7+1 프로그램’을 통해 포르투갈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또 해외 인턴십을 통해 학점 인정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포르투갈 프로 축구 3부 리그 아나디아FC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할 때 ‘나이’도 중요한 항목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늦지 않게 입사하는 등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입사도 졸업예정자가 아니라 ‘졸업자’가 조건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축구에 특화된 통역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축구가 좋아서 고등학교 시절 대학에 진학하면 포르투갈어를 전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굳혔을 정도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가 좋아서 현재 축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통역사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통역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축구, 스포츠 분야에서 통역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는 통역이지만, 팀의 일원으로 대회 준비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가까워서 들여다보고 함께할 수 있는 점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통역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 후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간혹 외대 학생 중 언어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면서 언어, 즉 전공을 내려놓는 사례를 봅니다. 하지만 전공인 언어는 기본으로 해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후배들보다 아주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어’라는 인생의 무기를 갖추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통역
김충환 대한축구협회 소속 통역사·포르투갈어 12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이 지난 12월 21일(수) 개최된 '2022 빅콘테스트' 데이터분석리그 이노베이션 분야에서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로 10회째인 빅콘테스트는 공공 및 민간 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과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다. QMS428 팀원 다섯 명을 만나 대회 참가 이야기를 들었다.



'2022 빅콘테스트' 데이터분석리그 대상 수상

QMS428팀

강민석 경영 17

박원정 영미문학 문화 20

서용원 경영대학원 22

이수현 경영 19

최효미 독일어통번역 17

무한 가능성의 발견

● **대상 수상 소감을 들려주세요.**

빅콘테스트 공모전 수상은 어떤 한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 경영 이론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원 5명의 힘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참가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 **대회에서 'MZ세대가 떠나는 친환경 ESG 제주여행 루트짜기'를 주제로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저희는 여행 카테고리별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3박 4일 친환경 제주 여행 루트를 설계했습니다. 경영 이론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MZ세대 여행자 관점에서 매력도 높은 친환경 제주 여행 루트와 최적의 탄소 배출량을 논리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제안할 때 중요하게 여긴 점은 마케팅 학회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실제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지 등에 집중해 더 시의성 있고 실효성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심사위원들에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서비스가 단순히 공모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주시나 스타트업 등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실 가능하고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제안한 점이 좋게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으로 '에코탐라'라는 앱을 제안했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대학생답게 특독 튀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도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탐라라는 확실한 콘셉트를 갖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직접 구상해 제안했는데 그게 참신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 **대회 참가 과정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입니까?**

강민석 무엇보다 2차 발표 심사장에서 발표하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발표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발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발표하게 되면서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2차 발표 심사장에서 발표할 때는 '생각보다 할 만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효미 시상식장에서 저희 팀이 1등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큰상을 받고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어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원정 팀원들과 좋은 인연을 쌓은 것이 좋았습니다. '코로나19 학번'이라 불리는 20학번인 저는 그동안 팀플레이 등 제대로된 단체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번 대회는 단순한 공모전 준비가 아니라 선배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

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건 밤샘 작업을 하다 새벽에 닭고치를 먹었던 일입니다(웃음).

서용원 저 역시 원정 팀원이 말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밤샘 작업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지만, 다른 팀원들과 같이 열정적으로 임하던 그 순간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팀원들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죠.

이수현 저는 이번 대회에서 부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줘 팀원들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온 것입니다. 우리 팀이 만든 코스로 직접 여행했는데, '우리가 구상한 코스로 사람들이 여행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팀원 모두 경영대학 퀀트마케팅학회(QMS) 소속입니다. 대회 참가와 관련해 QMS의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피드백을 해준 QMS 지도교수님인 경영대학 윤원주 교수님의 지도가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매달 한번씩 진행된 QMS의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관련 월 프로젝트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발표 준비를 할 때 저희 팀의 모의 발표를 보고 학회 다른 회원들이 피드백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상호 작용이 있었기에 좀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의 목표나 꿈은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박원정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너무 재밌고 저랑 잘 맞다고 느꼈습니다. 꿈이 데이터 분석 개발자로 바뀌었을 정도입니다. 이중 전공도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변경해 데이터 분석 개발 쪽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용원 남은 석사 과정 동안 경영 마케팅이나 데이터 분석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을 계획입니다. 졸업 후에는 데이터 분석 개발자와 전략 기획자를 잇는 포지션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최효미 지난 2월 졸업했는데, 학부 시절에 독일어통번역은 물론 융합 소프트웨어에 경영학까지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고 졸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아하는 것을 개발하고 자기계발을 하면서 다양한 것에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강민석 이번 공모전을 통해 카드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카드사 처럼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세계일주 혹은 제주도에 내려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이수현 원래 데이터 분석과 서비스 기획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대회에서 데이터 기반의 앱을 구상하면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에코탐라 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상을 바꾸거나, 사람들의 삶을 좀더 낫게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외대는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가 대학 내 진로 지도 및 취업 지원의 기능적 연계와 원스톱 고용 서비스 강화로 대학의 취업 지원 역량 강화와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 시장 이행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양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담당자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

+ THE HIGHEST GRADE HUFS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연차성과평가 최고 등급 '우수' 달성

진로취업지원센터
서울캠퍼스 정용호 팀장, 정성주, 부지영
글로벌캠퍼스 정중훈 팀장, 변민선, 한지영

2017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우수' 대학으로 선정



우리 대학이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사업 운영대학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전반에 있어 앞서서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이끌어주는 양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 김민정 처장님과 오세홍 처장님, 그리고 담당 업무에 항상 헌신하는 모든 분에게 감사함을 전

합니다. 모두 합심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수행했고, 이후 후속 사업으로 2021년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수행해오다 지난해 거점형 사업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2017년 우수 평가를 받은 이후 5년 만에 다시 2022년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매우 기쁩니다."

"이는 우리 대학이 지난 수년간 재학생과 지역 청년의 진로와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면서 축적된 노후가 비로소 결과를 맺은 것입니다. 학생들의 발전과 성공이 대학의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대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 등급 선정이 학생 취업 지원 체계가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전문화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특화 프로그램이 강점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년도(1년간)의 업무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데, 이를 연차성과평가라 부른다. 우수, 보통, 미흡 세 단계로 평가하며, 여기서 우수를 받으면 5년 단위 사업(우리 대학 기준 총액 37.5억, 연간 7.5억 규모)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서 추가로 1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우리 대학은 연간 1만 2천건에 달하는 우수한 상담건수와 높은 상담 만족도, 학교의 강력한 사업 의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체감도와 인지도 향상 노력,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지표 관리 및 가점 사항 등이 두루 고려돼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총장님 이하 학교 집행부의 관심과 사업 지원, 주무 처장의 적극적 사업 추진, 업무 담당자의 프로그램 특화 및 지표 관리 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조직 상·하위 관계자가 혼연일체돼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많다.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우리 대학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진로 취업지원센터는 지난해인 2022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우리 대학은 거점형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글로벌 창의융복합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특징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했습니다. HUFs 글로벌 기업 서포터즈, 글로벌 기업 커넥트(온라인 박람회), HUFs 글로벌 기업 현직자 직무 특강 온라인 클래스 등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특장점이자 강점입니다. 또한 양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에는 총 12명의 진로·취업 전문 상담 컨설턴트가 상주하는데, 이들이 재학생의 진로 설정과 취업 지원을 1:1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상담 일정을 오픈하자마자 5분 내 상담 신청이 마감되는 등 학생들의 상담 요구(Needs)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고민에 대해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해줘 학생 만족도도 높습니다. 학생 설문조사에서 재학생들이 요구하는 가장 우선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취업 지원 상담인 만큼 앞으로도 1:1 상담과 다양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학년과 고학년 프로그램 및 전문 컨설턴트 1:1 상담



진로취업지원센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외에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필수 과목으로 ‘HUFs Career Design’을 개설해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후 이러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실제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검사 도구(eDISC, MBTI, 버크만, STRONG, 진로발달검사 등)를 바탕으로 자아 찾기, 강점 찾기, 진로 설계 등의 프로그램과 직무 중심의 취업 트렌드에 맞는 직무 알아보기와 같은 특강을 운영합니다. 고학년이 되면 실제 취업 전선을 마주합니다.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교과목으로 ‘HUFs Pathfinder’를 개설해 직접적으로 취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현직자 특강, 직무 특강, 기업 분석 등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지원서 작성, 자기소개서, 실전 면접 교육을 통해 채용 과정을 실천처럼 준비할 수 있게 돕습니다. 구직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심리적 케어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외에 전문 컨설턴트 1:1 상담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우리 대학에 특화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 1:1 상담을 통해 진로, 취업 그리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다.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한 학생들은 1학기 15회의 상담 횟수가 부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진로, 취업 관련 준비가 부족해 쓴소리만 듣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상담 신청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더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부담 없이 방문하기 바랍니다. 센터 컨설턴트들은 진로를 찾고 취업을 준비하는 힘든 과정에서 학생들의 러닝메이트가 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105호와 글로벌캠퍼스 백련관 201호에 자리합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홈페이지 www.hufsbility.hufs.ac.kr, www.job.hufs.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직무 박람회 행사, 지역 청년 대상 컨설팅 진행

진로취업지원센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거점형 대학을 운영하면서 대학 내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고 대학 외부에서는 거점형 대학에 맞는 지역 거버넌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와 연계하는 활동이 대표적이데, 고용노동부, 서울시, 동대문구청과 협력해 대규모 직무 박람회 행사를 운영합니다. 우리 대학이 소재해 있는 동대문구청과 협업체 개척하는 온라인 취업 박람회는 어느새 3년차에 접어들었고,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지역 청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업 외에도 서울 시내 다른 대학교와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우리 대학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여러 프로그램과 특강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기업 취업 박람회, 금융권 페스티벌과 항공 서비스 특강을 새로 개설했는데,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1:1 상담 및 컨설팅도 진행한다. 우리 대학 주변의 다른 대학 학생, 군인 등 다양한 신분의 지역 청년들이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을 통해 우리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며, 참여자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에 인근 특성화고교의 학생들에게 진로 취업 지도 등 취업 관련 지속 가능한 지원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는데, 올해는 고등학교 방문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우리 대학은 거점형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글로벌 창의융복합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특징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했습니다. 또한 양캠퍼스에 총 12명의 진로·취업 전문 상담 컨설턴트가 상주하면서 재학생의 진로 설정과 취업 지원을 1:1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최종 목표는 학생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올해 목표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단계인 현재, 지난 2년여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대규모 프로그램들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현직 동문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방문해 후배들을 위해 온전한 하루를 보내며 선후배간 진로와 취업으로 소통하는 ‘현직선배와 함께하는 JOB코칭 데이’라는 전통적인 행사를 엽니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이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운영해 2020년 입학생들이 졸업 전에 이 행사에 꼭 참석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어 학생들의 ‘취업 성공’과 ‘이립(而立)’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는 ‘학생 성공이 대학의 성공’이라는 모토로 센터 내 활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성공’의 최종 목적지는 ‘취업 성공’이 아니라 ‘이립’ 즉,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와 취업 이 두 가지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입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곳에 취업했다 해도 내·외부적 요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권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 자신이 잘하는 일,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돕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러한 취업 성공과 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로취업지원센터의 사명이라 여기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언필 학생은 지난 겨울 베트남 켄터에서 진행된 '한국외대 2022학년도 동계 HUFS 글로벌 봉사단'에 참가해 7박 9일 동안 교육 봉사를 했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배우고, 느끼고, 함께 나누며 변화하는 시간'이었기에 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양언필 스페인어 20

켄터에서 보낸 특별한 한 주간

한국 중심의 편협했던 시야를 뛰어넘어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한국외대의 슬로건이다. 하지만 입학 때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그 슬로건이 빛바랬다. 2022년 1학기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재개됐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범세계적 유행 속에서 "외대를 만나고도 이문동만 보았다"는 친구들이 많았다. 불행하게도 나도 그중 하나였다.

스무 해 조금 넘게 보아온 세상은 넓으면서도 좁았고, 대학에서는 넓은 세상을 누비며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외부적 요건 속에서 대학이 제공해주는 기회의 장이 많이 좁아졌고, 남은 기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좁은 시야로 살았다. 그런 상황에서 온 좋게 HUFS 글로벌 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체성은 다른 집단을 마주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보낸 한 주장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나 한 사람이 한국과 외대를 대표하니 책임감을 가지라는 설명이 처음에는 이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봉사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환영해주는 현지 아이들과 켄터 UFO(The Union of Friendship Organization of Can Tho city) 관계자들을 만나며 한국인으로서의 대표성을 체감했고, 활동 하나하나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생활하게 됐다.

한국과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양한 베트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건기였음에도 간접 경험했던 베트남 남부 지역의 우기와 뜨거운 현지 날씨, 기후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차이 등을 경험하며 한국과의 생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 중심, 서울 중심의 시각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현지에서의 시간이 소중했다.

3년 만의 해외 봉사, 각자의 역할을 맡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해외 봉사가 재개됐다. 단원 대부분이 해외 봉사를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었고 나도 마찬가지였기에 기쁜 마음만큼이나 긴장이 됐다. 단원들이 처음 모인 사전 교육 첫날, 파견까지 예정된 장기간의 계획을 보니 봉사의 무게가 체감됐다. 파견 장소는 베트남 남부 켄터시의 탄 토이 중학교로, 우리는 약 180명의 학생에게 교육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단원들은 세 조로 나눠 과학, 예체능, 한국문화 수업을 준비하되 현지에서 담당할 물품 관리, 영상, 사진 등의 기능조 역할도 별도로 분담했다. 켄터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한국문화 공연이 예정돼 있었고 태권도, K-POP, 탈춤, 소고춤을 1인 2개 조에 소속돼 준비하기로 했다. 나는 과학조, 의약품 관리, 탈춤 공연과 태권도 공연 조에 소속돼 HUFS 글로벌 봉사단 활동을 준비했다. 11월부터 1월까지 네 차례의 사전 교육과 별도의 조별 토의 및 개별 연습을 마치고, 1월 7일 베트남으로 향했다.

배우고, 느끼고, 함께 나누며 변화하는 시간

솔직히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의 봉사활동이 베트남 현지 아이들에게 극적인 경험이 되거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거나 미래를 뒤바꿀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고 돌아오기 바랐다. 이러한 생각은 사전교육 일정에서 배운 개념인데, 현지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뒤 돌아보니 모든 경험이 그에 부합하는 건 아니었다.

이번 봉사에서 배운 첫 번째 결실은 '협력이 가진 힘'이었다. 우리 팀은 과학조로서 아이들에게 실험 활동이 들어간 수업을 진행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준비해간 물품 수량을 오판하거나, 현장에서 부족한 물품을 확인하거나, 수업 활동이 예측보다 빨리 끝나 시간이 남는 등 수업별로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이때가 '함께'의 힘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조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능동적으로 대처했기에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공유하며 힘을 모은 결과 4일간의 교육 봉사를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지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 건 아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일방적 수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탄 토이 중학교에서 여러 학급을 방문할 때마다 현지 친구들이 봉사단원 한 명 한 명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줬다.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 사인을 받아 남기고 수줍게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좋게 대할까' '정말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잠시, 현지 친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직접 교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졌다. 높은 관광 버스에 올라 위에서 아래로 보는 베트남의 풍경도 좋겠지만, 몸이 조금 힘들어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켄터에서 보낸 시간은 무척 특별했다.

여운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쑥 나타나라

물론 언어적, 체력적 제약이 존재했다. 영하를 오가는 한국에서 지내다 평균 30도의 켄터에서 하루 6번 수업을 하다 보니 현지 친구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따라가지 못하기도 했다. 영어로 이뤄지는 소통에서 베트남어만 할 수 있는 일부 친구와는 몸짓과 번역기로 겨우겨우 소통했다. 몸짓과 영어를 이용해 어떻게든 현지 친구들과 대화하려는 내 모습을 보며 동료 단원이 재밌어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그 순간은 최대한 학생들과 같은 시선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쏟았던 시간이다. 덕분에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현지 친구들과 활동 당시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나누며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었다.

처음 나가는 해외 봉사에 걱정과 긴장이 많았고 너무 많은 기대 대신 마음을 비우고 출발했지만, 많은 배움과 귀중한 추억을 안고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면 이때의 기억을 잊어버릴지 모른다. 벌써 학교로 돌아온지도 긴 시간이 지났고 많은 기억이 유실됐다. 하지만 봉사 과정에서 깊게 느낀 협력의 힘과 나눔의 즐거움, 보다 넓은 시야와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자세가 몸에 배어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쑥 나타나라 생각한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 한국외대와 아시아교류협회, 인솔 선생님과 베트남 통역 친구들과, 함께한 HUFS 글로벌 봉사단 팀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HUFS GLOBAL VOLUNTEERS





양진숙 후생과

엄마의 마음으로 전하는 진심

한국외대 후생과 양진숙 여사는 외대 식당에서 근무하는 27년차 베테랑 조리사다. 현재 교직원 식당에서 일하는 그는 교직원 식당을 찾는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가 내놓는 모든 요리에겐 엄마의 마음이 묻어 있다.

요리 좋아하는 27년차 베테랑 조리사

한국외대 교직원 식당은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음식 맛이 좋기로 소문나 있다. 여기에는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조리하는 후생과 양진숙 여사도 큰 몫을 했다. 그는 우리 대학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에서 27년째 근무하는 손맛 좋은 조리사다.

“처음에는 학생 식당에서 근무했고, 교직원 식당으로 와서 근무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주로 반찬과 밥을 담당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메뉴는 떡볶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떡볶이가 가장 맛있다고 말해줬거든요(웃음). 빼다귀해장국이라 각종 탕 종류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양진숙 여사는 평일 8시 전에 출근해 점심, 저녁 두 끼를 준비한다. 그날 메뉴가 무엇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보통 한 끼에 대여섯 가지의 반찬을 만든다. 메뉴는 나물 요리나 생선 요리, 튀김, 탕 등 다양하다. 어떤 요리를 하든 매순간 맛있게 만들어 최선을 다한다.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서 요리를 즐겨 하죠. 교직원 식당을 찾은 교수님과 교직원분, 학생들이 맛있게 식사했으면 하는 마음에 모든 메뉴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교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들이 맛있다고 말해주 요리할 때 자신감이 더욱 붙습니다. 외대 식당에 근무하면서 자녀들이 대학까지 잘 마칠 수 있게 교육시켜 보람도 큼니다.”

외국인 교수님들에게 박수받던 순간

27년 동안 외대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는 외국인 교수님에게 박수받은 일을 떠올린다.

“외대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돼 외국인 교수님들을 대하는 게 좀 어려울 때였습니다. 하루는 식사를 뷔페식으로 차렸는데, 그걸 맛본 외국인 교수님들이 ‘정말 맛있더라’며 크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때 조리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고,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름엔 ‘더우시죠’, 겨울 되면 ‘추우시죠’라며 한 마디씩 건네는 말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주 가끔 음식 맛이 좀 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식사를 마친 우리학교 분들이 ‘맛없어요’가 아니라 ‘오늘은 다른 날과 맛이 조금 달랐어요’ ‘지난번에 먹은 것보다 조금 짰어요’라고 예의를 갖춰 말해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I am

외대 가족은 나의 힘

교직원 식당에서는 영양사와 관리실장 외에 12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양진숙 여사는 위생과 영양, 맛은 기본이고, 친절을 중요하게 여겨 늘 실천하려고 애쓴다고 말한다.

“교직원 식당도 식당인 만큼 위생과 영양, 맛은 기본 요소로서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저는 친절이 중요하다고 여겨 교직원 식당을 찾는 분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구성원들이 좋아하고 잘 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늘 친절하기란 쉽지 않다. 살다 보면 몸이 조금 아플 때도 있고 간혹 마음이 힘든 날도 있다.

“솔직히 힘든 날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교직원 식당 예약이 아주 많은 날 같은 경우에는 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교직원 식당을 찾은 많은 분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게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몸에서 없던 힘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또 교수님과 교직원분, 학생들이 너무 잘 대해 주니까 저도 좀더 친절하게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늘 지금처럼 맛있게 드셔주시길

양진숙 여사가 교직원 식당에서 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 퇴임 이야기를 하는 그의 얼굴과 목소리에는 진한 아쉬움이 배어 있다.

“그동안 우리 외대 구성원 여러분들 모두 너무 잘해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으로 교직원 식당을 떠나는 것이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미, 교수와 직원, 학생 등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직원 식당을 자주 찾아달라고 말한다.

“교수님과 교직원분, 학생들이 교직원 식당을 자주 찾아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맛있게 식사한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외대 졸업생들이 취직했다고 인사하러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외대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졸업생들이 취직도 잘하고, 외대가 더욱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양진숙 여사는 정년 퇴임 이후 어떻게 지낼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느 곳에 있든 그 특유의 다정함으로 주위를 환하게 밝히면서 따스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무한한 기회의 땅, 미래의 중동에 대비하려면

지난 1월 15일(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UAE) 국민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은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단순한 말실수와 오해라는 해명에서부터 이란과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더 나아가 복잡한 중동 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이러한 논쟁이 확산하게 된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본질은 중동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동은 우리와 깊은 인연을 가진 매우 가까운 이웃이다. 과거 1970년대와 1980년대 건설 붐을 타고 제1의 중동 붐이 있었다. 그 시기 국내 건설사들의 외화벌이 주 무대는 '열사의 땅' 중동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나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곳이 바로 중동이었다.

요즘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최근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동은 빠르게 성장하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이자 장래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미래 시장이다. 왜 중동이 다른 시장보다 중요할까? 중동은 종교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인구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동 인구의 3분의 2가 35세 미만이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고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젊음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신중동 정책 발표,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 본격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중동 정책은 표면적으로 미국과 서구 중심의 진영 외교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1950년대 1개국과 수교했듯이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중동 수교국은 1957년 3월 수교한 튀르키예였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대규모 군대를 파병한 국가였지만 1950년대 후반 수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동 외교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외교 다변화를 표방하면서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확대시켜 나갔다. 1961년 이집트와 영사 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1962년 이스라엘(4월), 요르단(7월), 모로코(9월), 사우디아라비아(10월), 이란(10월), 1963년 7월 모리타니아, 1969년 3월 튀니지와 수교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중동 외교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아랍 산유국들은 서방 국가들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는 우리나라를 서방 국가들과 함께 수출 금지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석유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12월 15일 친아랍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중동사태에 관한 기본 입장'이라는 신중동 정책을 발표했고 12월 17일에는 최규하 특사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했다. 1973년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동 외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1974년 3월 오만과 카타르, 1977년 4월 바레인과 수단, 1979년 6월 쿠웨이트와 수교했다.

1980년대 이후 중동과의 경제 협력 확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미국이 이란을 강력한 우방국으로 규정하면서 친이란 정책을 추진하자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1975년 8월 25일 주한 이란대사관이 개설됐고, 1977년 6월 27일 테헤란 시장이 서울을 방문해 MOU를 체결했으며 그 상징으로 지명 교환에 합의했다. 1974년 10월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슬람 사원 건립을 착공해 1976년 5월 21일 세계 17개 이슬람 국가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슬람 사원 개원식이 거행됐다. 이슬람 사원의 개원은 우리나라와 중동의 문화적 관계를 확대시킨 중요한 계기가 됐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중동 외교는 자원 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이와 함께 중동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시켰다. 1980년 우리나라의 정상이 최초로 중동을 방문했다. 1980년 5월 최규하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직접 방문해 석유 공급 확보와 함께 경제, 기술 협력의 확대에 합의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친미 아랍 국가들과의 수교에서 벗어나 나서 반미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리비아와의 수교(1980년 12월)를 시작으로 1981년 2월 레바논, 1985년 8월 북예멘, 1989년 7월 이라크, 1990년 1월 알제리와 수교로 이어졌다.

경제 중심 교류에서 문화, 교육 등으로 확대시켜야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중동 정책은 자원 외교와 세일즈 외교를 결합시켰고 이를 위해 우리 정상들은 본격적으로 중동 순방에 나서 중동과의 관계를 확대시켰다. 2006년 2차례, 2007년 1차례, 2009년 1차례, 2011년 1차례, 2012년 1차례, 2015년 1차례, 2016년 1차례, 2018년 1차례, 2022년 1차례 등이 있었다. 또한 2007년 3월 25일에는 '21세기 한-중동 미래 협력 구상'을 발표해 중동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고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8년 7월 28일 창설된 한-아랍 소사이어티(Korea-Arab Society, KAS)는 민·관 합동 비영리 재단으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확대를 위한 전방위 협력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의 중동은 석유와 건설 붐의 대상에 불과했으나 미래의 중동은 다양한 방향으로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다. 미래의 중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 중심의 교류에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관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중동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인정해야 한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첫걸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유달승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장
중동연구소장

H

U



2023학년도 입학식
2023 Freshmen Welcoming Ceremony

2023학년도 입학식
2023 Freshmen Welcoming Ceremony
총장 축사
President's Congratulatory Message

HUFS NEWS

[HUFS Topics](#)

[HUFS Today](#)

[HUFS Academies](#)

[HUFS Professors](#)

[NEW Professors](#)

[HUFS Institutes](#)

[HUFS Books](#)

[CUF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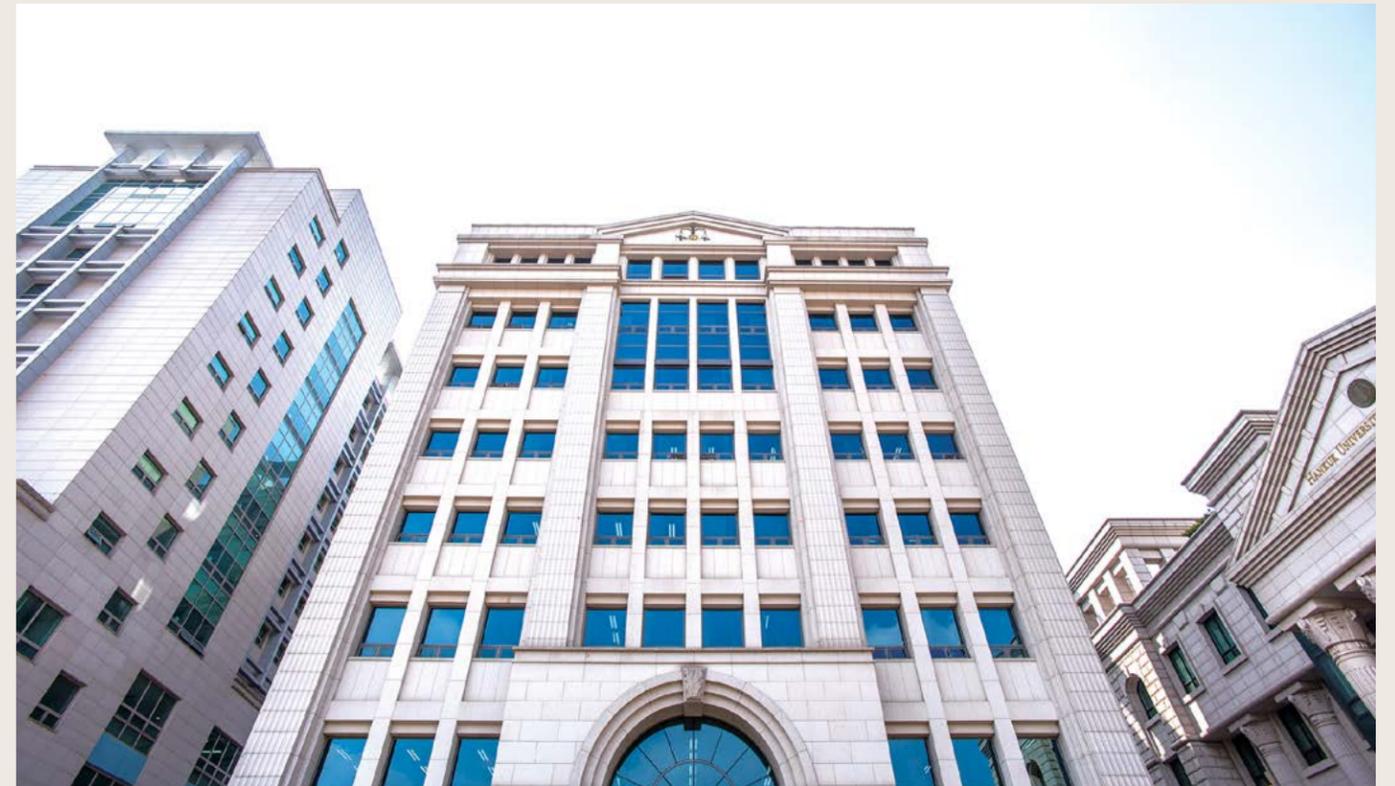
F

S



양인집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모교에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지난 12월 27일(화) 양인집(일본어 76)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주)어니컴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양인집 회장은 1997년부터 장학금을 비롯해 모교를 위한 발전기금을 꾸준히 기부했으며, 이번 기탁으로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총 2억원이 됐다. 이와 별도로 양 회장은 최근 외대 재학생을 위해 '청우당 장학금' 1억원을 총동문회에 기부했다. 양 회장은 "기부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많아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모교에 기부하는 보람을 경험하는 동문 수가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인집 회장은 쌍용화재해상보험 사장, 하이트진로 사장, 주일한국기업연합회장, 미국워싱턴주정부 한국사무소 대표 등을 지냈고, 1998년 9월 (주)어니컴을 설립했다. 동경 한국외대 동문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외대,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인증 획득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전학선, 이하 로스쿨)은 지난 2월 2일(목)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제3주기 로스쿨 평가 결과 '인증' 평가를 받았다. 로스쿨 평가는 5년 주기로 진행되며, 제3주기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이번 2022년도 평가는 제1주기(2012년), 제2주기(2017년)에 이어 제3주기 평가로서, 우리 대학은 제1주기, 제2주기, 제3주기 모두 재평가 없이 단 한 번에 인증 평가를 통과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제3주기 평가에서는 전국 25개 법전원 중 9개교만 인증을 받는데 성공했으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 우리 대학을 포함해 연세대, 한양대 등 3개교만 인증 통과에 성공했다.



행정직원 직무수행 관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전달식

지난 2월 3일(금)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우수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부서와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전달식이 개최됐다. 2022년 하반기 행정직원들의 업무 실적을 기반으로 한 표창 추천 결과 진로탐색활동협력,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 대학정보공시, 교육회복 프로그램, 대학교원 인사 제도 발전, 대학 진로교육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8개 업무 분야에서 우리 대학은 부서 표창(AI교육원) 및 7명의 행정직원(유정현, 박민지, 양성준, 문영훈, 김재영, 기원일, 신채은, 이상 표창 유공 순)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대신해 박정운 총장이 수여했다. 박정운 총장은 “우리 대학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시사토론 동아리 노곳떼 KBJG팀, KB금융그룹 ‘2022 KB 솔버톤 대회’ 대상

우리 대학 중앙 시사토론 동아리 노곳떼에서 우리 대학 대표로 출전한 KBJG팀(대표 이연희(국제통상 21), 김강휘(행정 20), 김영웅(스페인어 17), 방승원(국제 17))이 12월 1일(목) 열린 ‘2022 KB 솔버톤 대회’ 결승전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MIT대학에서 유래한 솔버톤(Solveathon)은 주어진 특정 문제에 대해 참가자가 팀을 이뤄 한정된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낸 후 발표·토론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아이디어 경진 대회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가 가상의 KB금융 최고경영자(CEO)가 되어 KB금융이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토너먼트 방식의 대학 대항전으로 29개 대학 81개 팀, 총 324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했다. 우리 대학 KBJG팀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넘버원(No.1) 금융플랫폼’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 진출을 제안해 최종 대상을 차지했다. 김영웅 학생은 개인특별상(글로벌 부문) 수상의 기쁨도 함께 누렸다.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문화 콘텐츠 창작 대회

우리 대학 체코·슬로바키아어과(학과장 유선비)는 12월 1일(목)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문화 콘텐츠 창작 대회'를 개최했다. 1부 문화 콘텐츠 창작 대회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전과 체코나 슬로바키아를 방문하지 않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UCC 창작전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체코어나 슬로바키아어로 설명했다. 2부에서는 체코 문화원장이 체코의 성탄절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성탄절 쿠키 만들기기에 참여했다.



한국외대, 세종학당재단 우수 지원 기관 감사패 수여

우리 대학이 12월 5일(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주관 세종학당 우수 장학생 활동 성과 발표회에서 우수 협력 기관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양재완 국제교류처장)를 수여했다. 우리 대학은 2016년 세종학당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학당재단이 추천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대학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가나다 순) 등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박정운 총장, #ENDViolence 캠페인 동참

우리 대학 박정운 총장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ENDViolence(아동 폭력 근절 캠페인)에 학생들과 참여했다. 박정운 총장은 "한국외대가 앞장 서서 전인 교육에 더욱 힘쓰고,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대학은 'END Violence'를 17개 언어로 번역해 의미를 더했다. 박정운 총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박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추천했다.



한국외대, 2022 대학진로탐색캠프 운영대학 최종평가 '매우우수' 선정

우리 대학 시교육원(원장 김낙현)은 2022 대학진로탐색캠프 사업에서 10월 중간평가에 이어 최종평가도 '매우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리 대학 시교육원은 이번 평가에서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SW봉사단을 활용한 수준 높은 'SW&AI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프로그램별 표준 교육안의 체계적인 제작 ▲진로탐색 기회가 적은 지역 학생을 비롯해 대안학교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 확대 운영 ▲수혜학교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받은 것이 좋은 평가 결과로 이어졌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유누스엠레 터키문화원 공동 학술문화제

우리 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학과장 오종진)는 12월 9일(금) 유누스엠레 터키문화원과 공동으로 '2022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학술문화제'를 개최했다. 학과 동문회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터키항공 서울지사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제4회 터키어 말하기대회, 투아즈(TUAZ) 갓 밸런스 대회, 튀르키예 사랑 에세이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무라트 타메르 주한 터키 대사 등과 80여 명의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했다.



융합인재대학, 2022 문화 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학과장 최진영)은 지난 12월 9일(금),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2 문화 콘텐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대회는 총 37개 팀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7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정상철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이 축사를 통해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했고, 본선 진출팀에 대하여 4명의 심사위원단이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 최종 대상의 영예는 권규빈, 박하령 학생으로 구성된 '엔티제일' 팀에게 돌아갔다.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 '제10회 2022 빅콘테스트' 대상 수상... 2관왕 쾌거

우리 대학 학생 대표단이 12월 21일(수) 열린 '2022 빅콘테스트(이하 빅콘테스트)'에서 데이터분석리그 이노베이션분야와 데이터분석분야에서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데이터분석리그 이노베이션분야에는 경영대학(학장 조준서) 퀀트마케팅학회(QMS) 소속 'QMS428 팀'이 참여했으며, 데이터분석분야에는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데이터 청년인재 양성사업, 책임 두일철 교수) 자연어처리 기반 딥러닝기술 융합과정' 학생들이 인 '길잃은아이들팀'이 참여했다.



아랍어과, 세계 아랍어의 날 기념식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는 12월 21일(수) 세계 아랍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은경 아랍어과 학과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랍시 낭송, 아랍어 글씨쓰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아랍어 글씨쓰기 대회에 참가한 40여 명의 학생은 저마다 자기만의 글씨체를 선보이며 실력을 겨뤘다.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뉘어 진행된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부상이 주어졌다.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 '2022 넥스-GSOK 논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학생 대표단이 11월 18일(금) '지스타 2022(Game Show & Trade, All-Round)' 기간 중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된 '2022 넥스-GSOK 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서 우수상(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우리 대학 경영대학(학장 조준서) 퀀트마케팅학회(QMS) 소속 이수현(경영 19), 김용운(경제 21) 학생은 'e스포츠가 프로스포츠 구단 온라인 브랜드 인지도와 흥경기 관중 수에 미친 영향: FIFA 온라인 e리그와 K리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논문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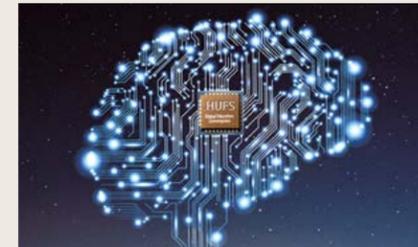
2023년도 신년 하례식

2023년 1월 2일(월) 오전 11시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2023년도 신년 하례식'이 개최됐다. 김봉철 행정지원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 하례식은 국민이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총장, 양인식 총동문회장의 신년사에 이어 교가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된 이날 신년 하례식에는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해 한 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다문화교육원, '제7회 이중언어능력인증시험'

우리 대학 연구산학협력단(단장 김재욱) 다문화교육원(원장 채호석)은 12월 17일(토) '제7회 이중언어능력인증시험'을 개최했다. 이중언어능력인증시험은 한국어와 이중언어(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태국어)로 필기, 구술 시험이 함께 치러졌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수어권 이중언어를 활용한 시험은 이 시험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다문화교육원은 "다음 시험에서는 급수 확대, 시험 장소 다변화 등 응시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SW중심대학 사업 단계평가 '우수' 선정... 2024년까지 SW/AI 산학 연계 교육 확대

우리 대학 시교육원(원장 김낙현)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의 단계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한 SW교육 교과과정 전면 개편과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활동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리 대학 시교육원 두일철 교수는 "학생들에게 '외대만의 차별화된 SW융합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SW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하노이국립대학교 국제교육교류 협정 체결
우리 대학 박정운 총장은 1월 9일(월)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산하 외국어대학을 방문해 Do Tuan Minh 총장과 Lam Quang Dong 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양교간의 교육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 체결식에는 우리 대학 양재완 국제교류처장 및 김재욱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참석했으며, 하노이국립대학 Tran Thi Huong 한국어문화학부장 등을 만나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통상학과 김정훈 학생, '2022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상급 전액 기부로 버킷리스트 완성
우리 대학 국제통상학과 김정훈 학생(국제통상 16)이 12월 29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국제통상학과 김정훈 학생은 "한국외대에 입학한 순간부터 버킷리스트 마지막 장에 두었던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외대생이라는 점을 살려 외국어와 지역학 근간 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을 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로 학교를 빛내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2022학년도 2학기 우수 취업컨설턴트 시상식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김민정)는 2월 1일(수) 서울글로벌 양캠퍼스에서 2022학년도 2학기 학생 진로취업지원 컨설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취업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울캠퍼스 부지영 선임컨설턴트와 글로벌 캠퍼스 한지영 선임컨설턴트가 각각 선정돼 상장과 부상을 수상했고, 캠퍼스별 진로취업 상담 사례를 공유해 향후 학생 상담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컨설턴트 간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2022학년도 동계 해외단기어학연수, University of Toronto에서 4주간 진행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는 1월 9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 University of Toronto(QS세계대학순위 26위, 2022년 기준)에서 4주간 집중단기어학연수 과정을 진행했다. 높은 경쟁률 속에 선발된 20명이 1인당 300만 원의 국제화장학금을 지원받아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수업은 물론 다양한 Social activities, Volunteer works 등을 경험했다. 현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우리 대학에서 주 단위로 부여하는 Weekly Surprise Project를 통해 현지 다양한 문화와 볼거리, 명소 등을 찾고 조사하는 외부 활동도 수행했다.



한국외대, 국립환경과학원 등 '고속도관측망 구축·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2월 8일(수) 국립환경과학원(김동진 원장)과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기술평대대학교와 '고속도 관측망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속도관측망(포스코타워) 구축·운영을 위해 참여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속도측정망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 확보 및 출입 등 운영 제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고, 고속도측정망 운영을 통해 생산된 측정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적극 활용하게 된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 한국외대 모금 운동 진행
우리 대학은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 후 나흘째인 2월 9일(목) 강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터키어 전공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학생회장인 4학년 송준엽 학생은 "국내 유일의 터키학과로서 이번 강진으로 인한 피해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구호 물품 기부와 모금 활동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헝가리어과, 에코프로와 '이차전지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우리 대학 헝가리어과학과장 한경민은 지난 2월 10일(금) 주식회사 에코프로(대표이사 송호준)와 이차전지 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양성 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외대와 에코프로는 앞으로 이차전지 산업 분야 인재를 발굴 및 양성하고, 재학생들의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는 학생들에게 해외 현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헝가리 법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헝가리 문화 및 언어 등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외대, 'HUFS Freshman Academy' 11개국 대사관 공동 프로그램 진행
우리 대학은 2월 9일(목)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을 대상으로 'HUFS Freshman Academy'의 일환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전 갖춰야 할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무려 8개국(러시아, 중국, 베트남, 멕시코, 몽골,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아제르바이잔, 이탈리아, 태국, 포르투갈) 대사관과 공동으로 대사의 역할과 대사관의 활동 영역, 해당 지역의 경제와 문화 등에 대해 신입생들에게 소개했다.



한국외대, 글로벌 SW/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최고 평가, 최고 지원금액 선정
우리 대학 SW인재양성사업단(시교육원장 김낙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가 지원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SW/콘텐츠분야)' 주관대학에 최고 평가 및 최고 지원금액으로 선정됐다. 사업 규모는 기업 대응 자금 포함 약 13억원이며, 지자체(용인시) 지원금 또한 추가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은 체계화된 '산업 수요기반 문제해결형 SW/AI교육'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의 고도화과정을 통한 글로벌 SW 융합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 동계방학 프로그램 진행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장한소리)는 이번 동계방학 동안 집단 상담 및 심리 수업, 또래 상담 수료식, 교직원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40여 명의 학생이 미술치료 집단 상담(미술치료를 통한 자기 이해), 무용치료 집단 상담(무용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진로 탐색 집단 상담(진로 준비 정도 파악 및 나의 직업 가치관 정리)에 참여했다. 또래 상담은 지난해 9월부터 1월까지 유학생 포함 총 100건에 달하는 상담이 진행됐다.



지식출판콘텐츠원, (주)정중한에프앤비와 산·학 업무 협력 협약
우리 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원장 고유성)은 2월 14일(화) (주)정중한에프앤비(대표이사 정정중)와 산·학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식자재를 활용하는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상호 협력 ▲기타 상호 협력 가능한 사업 개발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내외빈 소개, 지식출판콘텐츠원 고유성 원장 인사말, (주)정중한에프앤비 정정중 대표이사 인사말, 협약식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외대, 판교-서현 잇는 학생 통학버스 거점 노선 신설
우리 대학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판교역과 서현역 일대에 정착하는 학생 통학버스 거점 노선을 신설 운영하게 된다. 기존에 판교나 서현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신설되는 노선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판교-서현 노선은 거점 운행 노선으로, 일일 총 10회(오전 5회, 오후 5회) 운행함으로써 유동적인 등하교 및 시간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국제지역대학원

인도-태평양 연구팀, 일본방위연구원(NIDS) 등 공동 국제 세미나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원장 홍완석)은 12월 6일(화)~8일(목) 일본 도쿄와 교토 등지에서 일본방위연구원(NIDS),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소(Univ. of Tokyo-RCAST) 및 리츠메이칸대학 동아시아 평화협력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역내 국가 중심의 소다자주의 적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중국 및 미국 중심 안보질서의 대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외 저명 학자와 전문가들, 일본 측 동아시아 및 인태지역 안보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다수가 참가했다.



'2022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수상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소(소장 김찬원) 간디 아수람은 1월 18일(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파트너십상을 수상했다. 플래랑스, 간디아수람은 동대문구 평생학습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좋은 정책을 펼치는데 기여한 지역인문학센터로서 동대문구의 인문학 저변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디지털인문학한국학연구소

2022년도 제2차 튜토리얼

우리 대학 디지털인문학한국학연구소(소장 이해윤)는 1월 16일(월)~18일(수) 3일간 2022년도 제2차 디지털 인문학 튜토리얼을 개최했다. 여름방학에 이어 열린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이용훈 박사(충남대)를 초청해 '언어자료와 통계'를 주제로 언어 데이터의 처리 및 해석에 필수적인 통계의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뒀다. 정규 분포 테스트, chi-squared 검증, t-검증, ANOVA 등 통계 지식을 단기간에 학습하는 좋은 기회를 대학원생과 교강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제지역연구소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2022년 동북아 공동체 포럼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소(소장 김찬원)는 12월 23일(금)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2022년 동북아 공동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회고하고 동북아 협력의 가치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중·일 3국과 한중 양국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2023년에 중국 선양에서 동북아 공동체 포럼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동남아연구소

2022 동계 인도-동남아시아 학술대회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신근혜)는 12월 9일(금) 인도연구소, 한국태국학회, 국제인도-아세안학회와 공동으로 '2022 동계 인도-동남아시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남아연구소 신근혜 소장 한국태국학회 윤경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동남아지역연구, 태국지역연구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인도 및 동남아시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러시아연구소

2022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사업 수행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는 외교부 주최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행했다. 12월 11일(일)~17일(토) 모스크바 현지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12일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13일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MGIMO), 14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에서 연이어 개최됐다. 표상용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립 반포도서관과 인문 강좌 공동 개최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 HK+사업단은 11월 8일(화)~12월 27일(화) 8회에 걸쳐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다목적홀에서 '러시아, 전쟁과 문학으로 읽기'를 주제로 시민 대상 인문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과거 러시아문학 속에 투영된 러시아인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의 러시아를 객관적으로 읽어내기 위해 기획했다. 저녁 시간 오프라인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초주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다.



언어연구소

'언어와 언어학, 100호 발간 기념 학술대회

우리 대학 언어연구소(소장 서중석)는 12월 2일(금) 서울캠퍼스 도서관 휠라아쿠스네트홀에서 연구소 발행 학술지인 「언어와 언어학」 100호 발간을 기념해 '언어학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언어학 하위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음성음운 분야 홍성훈 교수(ELT학과), 통사구조 분야 김광섭 교수(영어통번역학부), 언어 유형 분야 권명식 명예교수, 의미·화용 분야 이성하 태국 Mahidol 대학교 교수가 과거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전망을 소개했다.



외국문학연구소

2022 정기 학술대회

우리 대학 외국문학연구소(소장 장은수)는 11월 16일(수)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문학과 예술'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외국문학연구소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올바른 문학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도로 기술화되는 현대 시대에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담론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했다. 학술대회는 장은수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부로 진행됐으며, 강연 내내 많은 질문과 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줬다.



Russia Report 연례 세미나 '전쟁 속에 보낸 한 해: 2023 러시아를 전망한다'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 HK+사업단은 1월 13일(금) 연례 보고서 Russia Report 발행의 일환으로 연례 세미나 '전쟁 속에 보낸 한 해: 2023 러시아를 전망한다'를 개최했다. Russia Report 세미나는 러시아 연구소가 매년 1월에 여는 정기 학술행사다. 주제별 발표 후 50여 명의 참석자가 의견을 나눔으로써 전쟁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한 해 러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을 짚어보고, 2023년을 전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역사문화연구소

제177회 콜로퀴엄 개최

우리 대학 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근영)는 12월 19일(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제177회 정기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제177회 콜로퀴엄 주제는 '唐代佛經의 유통과 확산경로'로 중국 칭화대 김은정 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김은정 박사는 당대 불경이 어떻게 유통됐으며, 어떻게 확산했는지에 대해 정리해 많은 참가자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불경이 어떤 제작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관심을 환기했다.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제5회 인도·남아시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원) HK+사업단은 12월 17일(토) 제5회 인도-남아시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도-남아시아 지역학에 대한 대학(원)생의 관심 제고와 미래지향적 청년 인재 발굴 및 학문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국내외 해외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수준별로 평가하기 위해 대학원과 대학생 부분을 나눠 부문별 각각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2편으로, 총 8편의 논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HUFS Academies

제56회 명사 초청 특강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HK+사업단은 1월 17일(화)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박금표 박사를 초청해 제56회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시크교 민족주의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시크교 탄생의 배경, 특징과 생활 규율, 시크교와 무굴제국, 영국 지배 시기 시크교 정체성 확립, 인도의 독립과 Khalistan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시크교의 전모를 역사적 순서로, 현재의 정치적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 해설해 청중의 호평을 받았다.



장모네 EU센터

한국유럽학회 공동 동계 학술대회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와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12월 16일(금)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바마홀에서 한국유럽학회와 공동으로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환기 한국-유럽 관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과학부터 인문학 및 환경/과학 분야까지 아우르는 세부 주제에 관해 총 8개의 세션에서 유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부터 동분야 대학원생들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유럽이 직면한 위기와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한국·아르헨티나협회 공동 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12월 14일(수) 한국·아르헨티나협회와 공동으로 '한국·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남극 생태 협력 전망'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HK+사업단 하상섭 교수, 우리 대학 EU연구소 김봉철 소장,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훌리안 카네사 참사관, 우리 대학 극지연구소 정혁 교수가 각각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리 사회에서 남극 생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남극에서의 활동을 확대하려면 아르헨티나와의 적극적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와 함께 '생태 문명과 자연의 권리' 관련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1월 16일(월)~18일(수) 3일간 칠레 센트럴대학교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산하 공식 프로그램인 하모니워드네이처의 공식지원(in support of and in partnership with UN Harmony with Nature) 하에 '자연 권과 생태경제를 통한 생태 문명으로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생태 경제 건설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과 생태 문명으로의 이행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에라도르 과야킬대학교 MOU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1월 18일(수) 칠레 센트럴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에라도르 과야킬대학교 법학/사회 정치과학부(Facultad de Jurisprudencia y Ciencias Sociales y Política, 학장 Leonel Fuentes Sáenz de Viteri)와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라틴아메리카 지구 법학, 자연권, 생태경제학 분야에 대해 향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U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 제2회 바우하우스 콜로퀴엄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연구책임자 김면희)은 2월 16일(목)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를 초청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이론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제2회 바우하우스(Bauhaus)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계약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과 공감(동의) 능력에 대한 설명과 함께, 흡스와 로코로 대변되는 기존 사회계약의 흐름을 살펴보고 사회계약의 서사적 힘에 주목했다.



HUFS Professors



김용재 경영학부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 대학 경영학부 김용재 교수가 12월 2일(금)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12월 2일(금) 세텍(SETEC) 컨벤션홀에서 '제2회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인터넷통신 서비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김용재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지표 개선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를 비롯해 이동통신 휴대폰 단말 유통 구조 개선, 5G 통신 서비스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자문을 활발히 수행해,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장영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한국동서철학회 회장 선출

우리 대학 미네르바교양대학 장영란 교수가 12월 10일(토) 한국동서철학회 추계 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제32대 회장으로 임명됐다. 장영란 교수는 우리 대학에서 서양 고대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고대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신화와 비극 등에 대한 연구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신들의 전쟁과 인간의 운명을 노래하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호모 페스티부스: 놀이와 예술과 여가로서의 삶', '죽음과 아름다운 신화와 철학', '장영란의 그리스 신화'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했다. 장영란 교수는 2021년 한국동서철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했으며, 학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2023년 1월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나민구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한국수사학회 회장 선출

우리 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나민구 교수가 12월 17일(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수사학회 2022년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년이다. 나민구 교수는 동양과 서양의 수사학 전통을 비교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수사학', '중국어 레토릭'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한국수사학회는 2003년 창립된 이래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고전수사학 계적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아우르며 설득을 통한 소통과 리더십을 전파하고 있다.

이은구 인도학과 교수, 한국인도학회 회장 선임

우리 대학 인도학과 이은구 교수가 12월 10일(토) (사)한국인도학회 제53차 정기 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돼 2023년 1월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은구 교수는 '인도문화의 이해', '끝없는 영화사랑의 땅, 인도', '힌두교의 이해', 'IT혁명과 인도의 새로운 탄생', '버마불교의 이해', '인도의 신화', '힌디소설 강해', '인도 입문' 등 다수의 저서와 각종 힌디어 교재를 출판했다. 한국인도학회는 1991년 국내 유일의 인도 연구 단체로 창립된 이래 국내·국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인도연구>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인도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수상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행정법, 환경법, 금융경제법)가 12월 9일(금)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제13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최승필 교수는 환경 행정과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입법안에 대한 분석 및 제정 방향은 물론 주요 소송 사례를 분석 및 평가하는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발표 발간했다. 최승필 교수의 이번 수상은 지난 1년간 환경법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쌓은 학자 1인에게 수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준서 러시아연구소 교수, 한국러시아학회 회장 선출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 송준서 HK교수는 12월 3일(토) 한국러시아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년이다. 송준서 교수는 현재 러시아의 동서양 인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연구재단의 HK연구사업 및 토대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기억, 지방 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작업을 수행했다. 2006년 창립된 한국러시아학회는 제정 시기 및 20세기 러시아사는 물론 유라시아 지역의 역사와 오늘날 러시아의 다양한 양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HUFS Professors

교수 출간



양재완 경영학부 교수, 한국인사조직학회 신진 연구자 학술상 수상

한국인사조직학회 신진 연구자 학술상 수상

우리 대학 경영학부 양재완 교수가 11월 19일(토) 열린 한국인사조직학회 2022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신진 연구자 학술상을 수상했다. 신진 연구자 학술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국내외 연구자로서 국내외 저명 저널에 우수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 학문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뤄 학문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상이다. 해당 학술상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제학술상의 경우 과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Temple University 등 우수한 연구자들이 수상했으며, 올해는 신진 연구자 학술상(한국외대 양재완), 중견 연구자 학술상(서울대 배중훈), 하남 학술상(연세대 신동엽) 등 세 분야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태용 환경학과 교수, 국제 저명 학술지 <Scientific Reports> 편집위원 위촉

우리 대학 환경학과 정태용 교수는 국제 저명 학술지 <Scientific Reports>(IF 4.996)의 환경공학 분야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며, 저널 심사와 편집 위원회 활동을 돕게 된다. <Scientific Reports>는 대표지 <Nature>를 출간하는 영국의 Springer Nature사의 오픈 액세스(Open-access) 저널이다. 자연과학 전 분야에 대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총 인용 수를 기록하는 영향력 높은 저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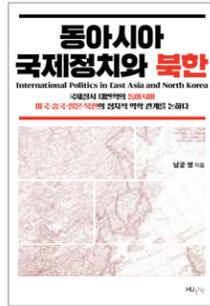


장은수 독일어과 교수, 제14회 올빛상 수상

우리 대학 독일어과 장은수 교수가 2월 15일(수) 한국여성연구협회(KWTA, 이사장 강선숙)에서 발표한 제14회 올빛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올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여성연극인'이라는 의미의 올빛상은 한국 연극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여성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으로 작가상, 연출상, 연기상, 평론상, 분장상 등 부문을 나눠 수상자를 선정한다. 평론상을 수상한 장은수 교수는 우리 대학 서양어대학장 및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장을 역임했고, 현재 외국문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연극평론가로서 월간 <한국연극> 편집주간, 한국연극평론가협회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 드라마화회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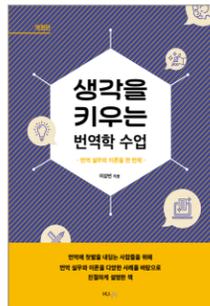
남궁영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북한」 출간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남궁영 교수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북한」(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을 출판했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Hot Region)인 동아시아의 대변혁과 미·중·일·러 그리고 북한의 국제정치적 역할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남궁영 교수의 저서로는 「분단 한반도의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패러다임과 동아시아 지역질서」,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 등이 있다.



이상빈 EICC학과 교수, 「생각을 키우는 번역학 수업」 출간

우리 대학 EICC학과 이상빈 교수가 「생각을 키우는 번역학 수업」(개정판)을 출판했다. 이 책은 번역 이론에 관심 있는 번역가나 번역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든 책이다. 기존 교재에서 접하기 어려운 음성 해설, 광고 번역, 법률 번역, 기계 번역 포스트에디팅, 컴퓨터 보조 번역 등을 포함해 말장난, 문장 부호, 신문 헤드라인, 의성어·의태어, 문화 용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실제 번역 사례와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번역을 친절하게 설명하며, 주제별 심화 학습을 위한 논문 리스트도 제시한다.



NEW Professors

<신임 교원>



- 01 김주애 영어대학 ELLT학과
- 02 정유미 영어대학 영미문학·문화학과
- 03 홍재웅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 04 이난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 05 최원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 06 김혁수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 07 박주현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 08 최진영 상경대학 경제학부
- 09 김현우 Language & Diplomacy학부

- 10 박현지 미네르바교양대학(서울)
- 11 한혜민 KFL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12 배주호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 13 장익범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 14 박종혁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 15 이정은 미네르바교양대학(글로벌)
- 16 Yao Zhanlong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 17 Nicolas Ernesto Caballero 외국어교육센터(글로벌)
- 18 Molly Clare Fleming 외국어교육센터(글로벌)

- 19 Joshua Michael Prigge 외국어교육센터(글로벌)
- 20 Anika Jean Valladolid Casem 외국어교육센터(글로벌)
- 21 Elia Lea Giulia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 22 Ummi Hani Binti Abu Hassan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 23 Sitara Jutharat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 24 Nguyen Thien Nam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베트남어과
- 25 Phan Thanh Bao Tran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베트남어과
- 26 Jompon Pitaksantayothin 국제학부
- 27 Anselm Sanghoon Lee 외국어교육센터(서울)

외국어연수평가원

2023년 상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3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2. 06. ~ 06. 23.
	방학특별과정	7월, 1월	07. 03. ~ 07. 28.
야간과정	야간회화과정	3월, 8월	03. 07. ~ 05. 25.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3월, 8월	02. 25. ~ 06. 10.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 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특별과정, 여름과 겨울 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특별과정 등이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http://fittc.hufs.ac.kr) http://fi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의 위탁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 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http://fittc.hufs.ac.kr) http://fittc.hufs.ac.kr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교육 및 직업훈련부의 이름인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기관으로, 연 3차례(5월, 7월, 11월)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http://dele.hufs.ac.kr)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을 개설,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학과정(A1~C2), DELE 시험 대비반(A2~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비즈니스/여행/축구 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지도한다. 평일과 주말에 모든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http://seul.cervantes.es)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서울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해 ‘통번역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 개설돼 현재까지 40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월과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http://edulife.hufs.ac.kr) http://edulife.hufs.ac.kr

재테크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역 사회 주민, 재학생, 동문 등을 대상으로 재테크과정을 신설해 1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3월에 2기 교육을 모집할 예정이다. 재테크과정은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 되기 전략’과 ‘부동산 실전 경매 입찰대비반’의 과정으로 운영되며, 부동산 실전 투자에 관심 있는 학생과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성인 누구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 수업 참여를 원하는 직장인 교육 수요자의 요청을 수렴해 2기는 온/오프라인 병행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평생교육원은 향후 재테크과정 이외에 유아동 자녀 부모 대상 프로그램 등 최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반영해 과정 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02-2173-2557 [홈페이지](http://edulife.hufs.ac.kr) http://edulife.hufs.ac.kr

FLEX센터

2023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우리 대학이 수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 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 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는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http://flex.hufs.ac.kr) http://flex.hufs.ac.kr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 16 ~ 02. 22.	03. 19.	04. 07.	04. 21.
2회	04. 27 ~ 05. 03.	05. 28.	06. 16.	06. 30.
3회	08. 10 ~ 08. 16.	09. 10.	09. 29.	10. 13.
4회	10. 05 ~ 10. 11.	11. 05.	11. 24.	12. 08.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의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http://flex.hufs.ac.kr) http://flex.hufs.ac.kr

TESOL전문교육원

2023년 전기(41기) 등록자 대상 Pre-course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2월 4일(토) 2023학년도 전기 등록자를 대상으로 Pre-course(프리코스)를 개최했다. 프리코스는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일교수들의 샘플 강의를 수강하며 전반적인 커리큘럼 이해도를 높이며 TESOL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학사, 장학, 인턴십 참가 등 TESOL연구과정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문의 02-2173-3504 [홈페이지](http://tesol.ac.kr) http://tesol.ac.kr

2022학년도 후기(40기) 수료식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2월 11일(토) 오전 11시 2022학년도 후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20여 명의 수료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만 TESOL전문교육원장 및 주임교수를 비롯해 지난 2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한 교수 6명이 참석했으며 축하 인사, 수료, 수기 연설, 최우수 성적 장학증서 수여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문의 02-2173-3504 [홈페이지](http://tesol.ac.kr) http://tesol.ac.kr

2023학년도 전기(41기) 등록자 대상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2월 11일(토) 2023학년도 전기 등록자를 대상으로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신입생들은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반적인 커리큘럼 이해도를 높이고 교수료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짐으로써 TESOL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학사, 장학, 인턴십 참가 등 TESOL연구과정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의 02-2173-3504 [홈페이지](http://tesol.ac.kr) http://tesol.ac.kr

한국어문화교육원

겨울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번 겨울학기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철저한 방역을 거쳐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했으며,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 우리 교육원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5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홈페이지](http://www.korean.ac.kr) http://www.korean.ac.kr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삼성그룹 글로벌인력양성과정(3차)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삼성그룹 해외 접점 부서 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성 글로벌인력양성과정(3차)’을 운영했다. 지난 12월 12일(월)부터 2월 17일(금)까지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는

베트남어 및 스페인어 입과생을 대상으로 국가별 현지화 교육 및 현지 업무 적응을 위한 실무 특성화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업무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학습 및 연습을 통해 현지어로 소속사 소개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표현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춰 과정을 진행했다.

문의 031-330-4808 [홈페이지](http://gla.hufs.ac.kr) http://gla.hufs.ac.kr

2023년 삼성 주재원 실무역량강화과정(1차)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해외로 파견되는 삼성그룹 주재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16일(월)부터 2월 10일(금)까지 총 4주간의 기간 동안 주재원들이 현장 업무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주재원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중남미 지역(스페인어), 인도네시아, 브라질(포르투갈어)로 파견되는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과제 수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국제사회교육원은 이번 1차 과정에 상반기 중 추가로 삼성그룹 주재원 파견 예정자를 대상으로 4주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2차례에 걸쳐 주재원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문의 031-330-4808 [홈페이지](http://gla.hufs.ac.kr) http://gla.hufs.ac.kr

경기도교육청 소속 현직 교사 부전공 연수 진행

국제사회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현직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2022년 중등교사 특별자격연수(부전공 연수)’를 진행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중등교사의 다양한 교과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과정은 1~8월 총 8개월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심리학 교과목 117명, 정보/컴퓨터 교과목 41명 등 총 158명의 현직 교사가 입과해 체계적인 이론 수업과 함께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연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인 2023년 동계연수는 1월 30일(월)부터 2월 17일(금)까지 3주간의 대면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며, 두 번째 세션인 2023년 1학기 연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또는 원격 연수원을 활용한 원격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2023년 여름방학을 활용해 3주간 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총 30학점 450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학교 현장에서 전공 교과목 외 부전공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문의 031-330-4808 [홈페이지](http://gla.hufs.ac.kr) http://gla.hufs.ac.kr

영재교육원 2022년도 정규과정 수료식 개최

영재교육원은 2022년도 영재교육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진행했다. 1월 7일(토) 진행된 수료식에는 재원생과 학부모, 참여 교강사진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 총 4개 학급으로 구성된 2022년 정규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대면 수업 방식으로 진행돼 재원생 및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58명 전원이 수료 기준을 통과해 전원 수료했다. 한편 2023년도 영재교육원 정규과정은 3월 4일(토)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월 2회씩 총 16회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031-330-4910

[홈페이지](https://gifted.hufs.ac.kr/gifted/index.do) https://gifted.hufs.ac.kr/gifted/index.do



통번역센터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우즈벱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캄보디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8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히브리어, 우즈벱어, 캄보디아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http://hufscit.com) http://hufscit.com

IT 혁신과 e비즈니스—e비즈니스 I

기본적인 e비즈니스의 소개와 더불어 IT 혁신과 함께 급변하는 e비즈니스 변화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이다. e비즈니스(Electronic Business)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작됐고,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크게 성장해왔다. e비즈니스는 시스템,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며,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 4차 산업혁명 등 IT 혁신으로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리라 기대되는 분야다.

조준서 / 244면 / 신국판 / 18,000원



스웨덴어학 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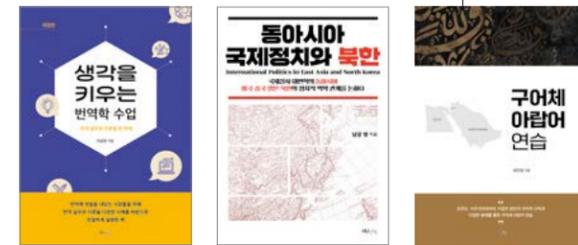
이미 정형화된 한 외국어의 틀을 끊임없는 반복적 연습과 암기를 통해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실천적 행위이지 그 자체가 학문적 탐구 행위는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스웨덴 언어학'을 '스웨덴어학'으로 부르듯 '언어학'을 '어학'으로 줄여서 쓰기도 한다. 이 경우 실용적 필요성에 따라 언어 습득을 추구하는 어학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이 책은 스웨덴어의 구조와 체계, 변천에 대한 언어학적 기술서(Svensk Sprakvetenskap)라고 할 수 있다.

변광수 / 392면 / 신국판 / 29,000원

**생각을 키우는 번역학 수업
—번역 실무와 이론을 한 번에**

이 책은 번역학(Translation Studies) 전공자가 번역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실무와 관련된 기초 이론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려 집필됐다. 하지만 이 책은 번역학의 모든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는다. 집필 과정에서 필자는 '번역 실무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도 이 정도 이론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론에 접근했다고 설명한다. 책에서 소개한 대부분의 번역은 학부 번역 수업에서 논의한 실제 번역이며, 국내 번역(학) 수업에서 자주 논의되는 문제를 분야별로 보여준다.

이상빈 / 350면 / 크라운판 / 19,000원



구어체 아랍어 연습

이 책은 아랍어 방언 중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방언을 선별해 음운, 형태, 통사적 언어적 특징과 사용 용례를 정리한 것이다. 방언학 또는 방언 연구는 오랜 기간 현지 연구와 조사, 다양한 사례의 수집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정설이다. 미력이나마 이들 방언의 언어적 특징과 사용 용례를 정리했지만, 간과하거나 누락된 부분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 책이 아랍어 방언 학습과 교육에 크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최진영 / 166면 / 크라운판 / 17,000원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북한

이 책은 미·중의 패권 경쟁 심화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인 동아시아의 대변혁과 미국·중국·일본 그리고 북한의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도-태평양에서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로, 대서양에서는 전통적 동맹인 나토(NATO)와 합동 전선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다. 미중 충돌 양상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 경쟁에서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는 진영간 대립으로 진화하고 있다.

남궁영 / 534면 / 신국판 / 25,000원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학술축제**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이 지난 12월 10일(토)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학술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Dr. Charlene Polio,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의 Dr. Bronson Hui 등 세계적인 TESOL 분야 석학의 온라인 콜로퀴엄으로 시작된 행사는 동국대학교 신정아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김혜리 교수의 오프라인 특강으로 1부 학술축제의 진행을 이어갔다. 이후 TESOL대학원 이선영 원장의 사회로 2부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장지호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TESOL 대학원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선포했다.



**사이버한국외대,
한국러닝연합회 '우수 콘텐츠기관상' 수상**

사이버한국외대가 사단법인 한국러닝연합회(회장 이상희)의 2022년 우수 콘텐츠기관상을 수상했다. 한국러닝연합회는 교육 인증 평가 전문 협회로, 우수한 콘텐츠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이러닝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우수 콘텐츠 인증을 받은 기관 중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 '우수 콘텐츠기관상'을 수여한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자체 제작한 교육 콘텐츠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러닝연합회의 이러닝 콘텐츠 품질 인증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러닝 전문 기관 인증에서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사이버한국외대, 3년만의 오프라인 학생 축제
'2022 쿠페스타(CUFESTA)' 개최**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12월 17일(토) 사이버관에서 '2022 쿠페스타(CUFESTA)' 축제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축제만큼 다채롭고 알찬 체험 부대 행사와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방문객을 맞이했다. 장지호 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축제 메인 행사는 마술쇼와 뮤지컬 갈라쇼 축하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사이버한국외대생들의 가요제 무대가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공연과 이벤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따뜻한 연말 시즌의 추억을 선사했다.



**'언어권별 한국어교사 양성'을 위한
해외한국어교육실습 베트남서 진행**

사이버한국외대는 1월 9일~15일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동아대학교에서 해외한국어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은 '언어권별 한국어교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이버한국외대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7년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태국, 불가리아,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다년간 진행됐다. 이번 실습 프로그램은 베트남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오전 한국어 수업, 오후 한국 문화 체험 활동이라는 일정을 갖고 일 6시간의 단기몰입식 교수 방법으로 진행됐다.



사이버한국외대 '제13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는 2월 4일(토) 사이버관 소강당에서 '제13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는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고 일본어와 일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일본어 실력을 유감없이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스피치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한 11명의 참가 학생 모두 독창적인 주제와 풍부한 표현력으로 뛰어난 스피치를 선보였다. 일본어학부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이버한국외대, 2023년 전기 학위수여식 및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식 거행**

사이버한국외대와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의 2023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5일(토)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828명, 석사 11명 등 총 839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이 끝난 후 대학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입생 입학식이 진행됐다. 입학식에서는 입학생들의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학사와 콘텐츠, 대학생활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총학생회 임원 소개와 각 학부·학과별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마련됐다.

H U



Hufs Alumni
Hufs Donation

F S

HUFS Alumni

‘외대 언론인의 밤’, 외대언론인상에 이종락·전진배 동문
 지난 12월 20일(화) 한국외대언론인회(외언회, 회장 김중구, 정치외교 77)는 한 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22 외대 언론인의 밤’을 개최했다. 전희원 아 나운서(영어 96)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중구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 로 박정운 총장과 양인집 총동문회장의 축사, ‘2022 외대 언론인상’ 시상식, 만 찬과 기념 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구 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 19로 그동안 외언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내년부터 외언회 조직을 더 욱 활성화해 동문 언론인들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 외대 언론인상’에는 이종락 서울신문 상무이사(아랍어 84)와 전진배 JTBC 보도 담당 대표이사(프랑스어 90)가 올해의 외대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외언회는 “이종락 동문은 1991년 서울신문 입사 이래 정치부장, 사회부장, 논설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균형 잡힌 보도·논평에 노력했으며, 관훈클럽 감사, 외대 총동문회 언론이사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언론과 모교 발전에 기여했다”고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진배 동문은 1996년 중앙일보 입사 후 정치부, 사회 부 기자, 파리특파원을 지낸 뒤 JTBC 사회부장, 정치부장, 취재부 국장을 역임, 2014년부터 주말 뉴스룸 앵커를 맡아 뉴스를 진행했으며,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 취재팀장과 2016년 국정농단사건 보도의 총책임자를 맡아 정치사회 적 큰 이슈에서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올 8월부터는 JTBC 보 도 담당 대표이사를 맡아 JTBC 보도 부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외언회는 “두 사람이 뛰어난 언론인으로 모교 발전과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공 로가 크다”고 수상 배경을 밝혔다.



한국외대 총동문회 2023 정기총회,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에 김태식, 조현동 동문
 2월 3일(금) 우리 대학 총동문회(회장 양인집)는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에서 ‘2023 한국외대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을 개 최했다. KBS 아나운서 장웅(경영정보(석) 97) 동문이 사회를 맡아 1부 정기총 회 및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 2부 만찬 및 총동문회 활동 보고 등으로 진 행됐다.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은 김태식(국제통상 66) (주)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와 조현동(스페인어 78) 외교부 제1차관이 수상했다. 김태식 동문은 제26 대 총동문회 임원으로 동문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지난 15년간 국제통상학과와 ROTC 동문회에 매년 장학금을 기부했다. 조현동 동문은 1985년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 단장, 주미국 대한민국대 사관 공사,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외 교부 제1차관에 오르며 외대인의 자긍심과 모교의 위상을 높였다.



재동경 한국외대 동문회, 2023년 신년회 및 정기총회
 2월 9일(목) 우리 대학 재동경 동문회(회장 정기영, 스페인어 76)가 일본 도쿄 Le Port Hotel에서 2023년 신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민웅(일본어 93)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박정운 총장은 직접 참석해 동문회의 단합과 모 교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고, 모교의 변화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설명 했다. 또한 양인집(일본어 76) 총동문회장은 모교를 위한 지원, 화합과 동문간의 우애를 당부했다. 정기영 회장은 “동문회는 매년 모교 재학생 1명에게 1년간 전 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탁경숙 동문(스페인어 65)은 모교 발전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총회에는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재동경 동 문들간의 화합과 우애를 다지고 모교를 위한 기여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HUFS Alumni

동문 출간

아랍어과,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는 1월 10일(화)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2022년 아랍어과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2023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로 3년만에 열린 이날 행사는 홍영표(아랍어 81) 아랍어과 총동문회장의 개회사 를 시작으로 박정운 총장과 양인집 총동문회장의 축사, 회계 및 행사 보고, 차기 회장 선출, ‘아랍어과 동문장학생’ 시상식, 만찬과 기념 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 행됐다. 홍영표 회장(아랍어 81)은 개회사에서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 꿀 수 없다”며, “신임 회장을 도와 아랍어과의 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동문회장 선출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남기창(아랍어 81) 신임 회 장은 “아랍어과 총동문회와 재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 운 집행부 구성을 통해 함께하는 동문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아 랍어과 동문장학생’ 시상식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전달됐다.



유조혁(스페인어 87) 동문, SM상선 대표이사 취임
 지난 11월 10일(목) 우리 대학 유조혁(스페인어 87) 동문이 SM상선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유조 혁 대표는 한진해운을 거쳐 2016년 SM상선 출 범과 함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활약했고 설립 초기부터 글로벌 선사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주도 적 역할을 했다. 유 대표는 “해운, 환경 규제, 글 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에 신 속하게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설균태(영어 59, 재경문학회장)
 재경문학 제7호
 (재경문학회)



유택주(경제 74)
 개달음과 멸정복성
 (반달뜨는 꽃섬)



이희수(터키·아제르바이잔어 75, 한양대 명예교수)
 인류본사
 (휴머니스트)



김민형(산업경영공학 03)
 전공자도 비전공자도 IT업계에서 역대 연봉 만들기
 (라온북)

Alumni News

2022. 12. 01. ~ 2023. 2. 28.

HUFS Alumni

인문

박경은	노어 91	경향신문 편집국 라이프팀 선임기자
한대광	정치외교 83	경향신문 편집국 전국사회부 선임기자(부국장)
엄희재	러시아학 98	연합뉴스 콘텐츠비즈국 글로벌전략팀 차장
이지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98	연합뉴스 사진부 차장
임기창	영어통번역 00	연합뉴스 산업부 차장
정주호	중국어 89	연합뉴스 편집국 국제담당 부국장
황윤정	중국어 93	연합뉴스 영상미디어부장
강병준	경제 87	전자신문 대표이사 사장
임종주	독일어 88	중앙일보 콘텐츠제작에디터

금융

안병호	말레이·인도네시아어 90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부장
황정욱	국제통상 90	한국수출입은행 플랜트금융부장
박관수	법학 84	우리금융지주 영업총괄그룹 본부장
이승중	국제경영 86	KB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전무
양준수	국제통상 95	KDB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1실 팀장
김원형	네덜란드어 95	KDB 산업은행 인천지점 팀장
정민희	행정 98	KDB 산업은행 판교지점 팀장
조윤주	영어 99	KDB 산업은행 PF3실 해외주재원
진영준	경영 00	KDB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해외주재원

기업

남승희	정보관리(석) 02	금강공업 증원엔지니어링 상무
김육동	아랍어 87	대우건설 상무
정종길	행정 90	대우건설 상무
박윤기	경영 88	롯데그룹 롯데칠성음료 부사장
현종혁	국제통상 89	롯데그룹 롯데백화점 전무
김용주	네덜란드어 90	삼성전자 부서장(DS부문)
박현준	페르시아어·이란학 96	삼성전자 상무(OX부문)
조현용	전자물리 85	세아제강 이사
이상현	행정 85	한국서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
정준기	터키·아제르바이잔어 93	현대중공업그룹 한국조선해양 상무
박종필	경제 86	현대해상 개인영업본부장
박창수	영어 86	현대해상 일반보험본부장
이재성	법학 88	현대해상 수도권FG보상부장
임대근	행정 88	현대해상 강서사업부장
임영수	경제 87	현대해상 제휴영업본부장
권순욱	이탈리아어통번역 92	LG그룹 상무
장준영	경영 92	LG그룹 상무
정필원	프랑스어 87	LG그룹 전무
최호진	프랑스어 92	LG그룹 전무

교육

박주영	경영 81	숭실대학교 국제처장 겸 국제교육원장
이환범	행정 81	영남대 경영전략부총장
송영빈	일본어 8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 주임교수
이상윤	국제통상 87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장

공공기관

이승훈	경영정보 93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홍보팀장
이종실	행정 8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투자전략실장
박인규	경제 94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대전센터장
이상우	법학 83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제기지원단 지점장
이인수	스페인어 85	신용보증기금 마포제기지원단 지점장
이정윤	법학 87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허영재	경제 86	신용보증기금 대전지점장
황현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89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장
김종식	일본어 86	전문건설공제조합 리스크관리팀장
마정민	한노(석) 00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팀장
박정웅	이탈리아어 88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전략팀장
호수영	중국어 94	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장
황현혁	말레이·인도네시아어 95	한국관광공사 MICE마케팅팀장
김상두	독일어 87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사업처장
유형준	영어 88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운영부장
강병욱	일본학(석) 00	한국연구재단 학술총괄실장

Donation News

HUFS Donation



정원수 (주)세룬인터내쇼날 대표이사, 모교에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2월 1일(수) 정원수(영어 80) (주)세룬인터내쇼날 대표이사가 모교를 위한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서울 캠퍼스 총장실에서 개최된 이날 기탁식에는 정원수 대표이사, 박정운 총장, 장태업 재무·대외부총장이 함께했고, 정 대표 대학 동기인 한국어교육과 박정호 교수(영어 80)가 참석했다. 정 대표는 “회사가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외대에서 익힌 어학과 글로벌 감각 덕분”이라며 “후배들이 캠퍼스에서 비전을 찾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세룬인터내쇼날은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로서 현대, 기아, 쉐보레 등 국산 자동차 및 일본, 유럽 차종 부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정원수 대표이사는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수출 역량 강화에 집중, 해외 20여 개국과 교역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무역 기업인이다.



일본학대학, 양해준(일본어 00) (주)유림의료기 대표에 기부 감사패 전달

1월 30일(월) 일본학대학(학장 문명재)은 양해준(일본어 00) (주)유림의료기 대표이사 가 모교 후배들을 위해 일본학대학 장학금 및 발전기금으로 총 7천만원을 기부한 데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명재 학장은 김인신(융합일본지역전공 21, 일본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학생과 함께 충북 청주의 유림의료기 본사를 찾았다. 양해준 대표는 2006년 우리 대학 일본어과를 졸업, 의료 소재 전문 제조 기업인 (주)유림의료기를 이끌고 있으며,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며 2019년부터 매년 일본학대학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해준 대표가 기부한 금액은 총 7천만원이다.

재단법인 현마옥영재단 2023학년도 제13기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현마옥영재단 2023학년도 제13기 장학금 수여식이 2월 28일(화)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성희 현마옥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현마산업 이준섭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우리 대학 박정운 총장,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전학선 법학전문대학원장, 오종진 대외협력처장,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서울)을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성희 이사장은 “현재의 부족함은 훗날 삶을 이끄는 귀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항상 근검한 삶을 살며 꿈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운 총장은 “이 나눔의 정신과 외대의 창학 정신을 모두 이어받은 현마의 장학생들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올해로 제13기 장학생이 선발돼 연인원 111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으며, 총 누적 지급액은 776,974,000원이다.



재직동문교수회, 202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 개최

지난 12월 5일(월) 우리 대학 재직동문교수회(회장 김시홍)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알레그로룸에서 2022학년도 2학기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직동문교수회 정기총회를 겸해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는 총 6명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각 1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2022학년도 2학기 장학생은 강루미(대학원 영어학), 김영화(포르투갈어), 남민지(러시아학), 성규림(정치외교), 송채은(수학), 윤병수(경제) 학생이다.



한국외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강동희	17학번	30,000
강영구	90학번	100,000
강영남	93학번	30,000
강일갑	79학번	128,830,427
강지혜	04학번	30,000
고경숙	01학번	30,000
고영무	93학번	150,000
고태수	07학번	30,000
고혜섭	11학번	90,000
고혜수	16학번	30,000
공병훈	11학번	90,000
곽영근	17학번	20,000
곽성희	74학번	3,360,500
곽태석	77학번	30,000
곽현영	89학번	50,000
구민규	02학번	30,000
구자철	73학번	10,081,500
권서영	19학번	30,000
권성욱	79학번	30,000
권순환	66학번	60,000,000
권영아	91학번	30,000
권준호	93학번	90,000
김경민	01학번	90,000
김광성(Kevin Kim)	76학번	128,830,427
김기수	87학번	40,000
김남규	18학번	40,000
김대윤	99학번	30,000
김대호	91학번	60,000
김대회	11학번	90,000
김도현	13학번	20,000
김도현	19학번	30,000
김미경	84학번	150,000
김미수	14학번	30,000
김민정	99학번	30,000
김민정	19학번	30,000
김민주	16학번	30,000
김범수	92학번	30,000
김병수	03학번	20,000
김병진	70학번	60,000
김보민	02학번	30,000
김상원	86학번	30,000
김선수	86학번	60,000
김선주	74학번	60,000
김승수	87학번	90,000
김승영	86학번	800,000
김용빈	89학번	30,000
김용정	95학번	187,500
김용진	89학번	90,000
김용현	89학번	60,000
김유정	03학번	30,000

성명	구분	금액(원)
김유현	10학번	90,000
김은정	94학번	530,000
김은정	93학번	30,000
김이선	16학번	30,000
김익중	84학번	1,000,000
김자영	11학번	90,000
김정훈	16학번	1,000,000
김종윤	90학번	30,000
김주영	20학번	30,000
김준영	93학번	20,000
김지숙	15학번	30,000
김지은	04학번	30,000
김지한	04학번	30,000
김태림	20학번	30,000
김태우	17학번	40,000
김현수	16학번	30,000
김현신	99학번	30,000
김희재	96학번	20,000
나도연	83학번	20,000
나인애	08학번	30,000
남한솔	16학번	30,000
노건엽	99학번	60,000
노일현	09학번	30,000
노지영	91학번	30,000
류동호	89학번	30,000
류재욱	95학번	30,000
류재봉	57학번	30,000
문관식	08학번	90,000
문종혁	19학번	30,000
문현성	98학번	30,000
민병조	72학번	1,000,000
민희창	01학번	30,000
박기정	80학번	150,000
박남호	92학번	30,000
박대연	07학번	60,000
박미진	93학번	150,000
박범용	84학번	500,000
박병철	67학번	128,830,428
박상준	93학번	40,000
박선홍	81학번	30,000
박성수	87학번	60,000
박성준	89학번	1,000,000
박성호	96학번	30,000
박순원	00학번	60,000
박용권	77학번	500,000
박용준	19학번	20,000
박용현	95학번	30,000
박원복	79학번	90,000
박은주	93학번	60,000
박재홍	14학번	30,000

성명	구분	금액(원)
박종관	86학번	3,000,000
박종성	14학번	30,000
박지영	99학번	30,000
박찬수	89학번	5,000,000
배동현	03학번	100,000,000
배석주	90학번	60,000
배은경	02학번	30,000
배진희	01학번	3,000,000
백승아	86학번	1,000,000
백승연	12학번	30,000
백인규	92학번	30,000
백창호	72학번	128,830,427
부중환	71학번	30,000
상연진	02학번	60,000
서기원	81학번	30,000
서유경	92학번	90,000
서정규	82학번	1,000,000
손관주	18학번	30,000
손세일	09학번	3,000,000
손세준	05학번	30,000
송대현	86학번	60,000
송원영	14학번	30,000
송철준	74학번	30,000
송치민	93학번	40,000
송현우	15학번	60,000
신민하	97학번	60,000
신아람	11학번	30,000
신연재	81학번	30,000
신용교	19학번	150,000
신윤경	08학번	30,000
신윤철	04학번	30,000
신인선	11학번	90,000
신정현	02학번	30,000
심찬	03학번	60,000
안상범	90학번	30,000
안우혁	19학번	30,000
안준상	92학번	30,000
양병욱	14학번	20,000
양연우	97학번	60,000
양인집	76학번	100,000,000
양해준	00학번	20,000,000
엄홍길	02학번	30,000
여민기	18학번	730,000
염철	88학번	150,000
오성식	79학번	150,000
오성진	04학번	30,000
오윤	03학번	30,000
오정훈	06학번	60,000
오창엽	85학번	30,000
윤율식	56학번	200,000,000

Donation News

HUFS Donation

2022. 12. 01. ~ 2023. 2. 28.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우재만	71학번	60,000
유근혁	11학번	90,000
유민경	13학번	30,000
유시영	84학번	30,000
유영미	82학번	90,000
유은찬	20학번	30,000
유재형	96학번	30,000
유정은	05학번	30,000
유진규	11학번	30,000
윤상기	73학번	1,000,000
윤선수	14학번	330,000
윤진선	02학번	100,000
윤현숙	14학번	100,000
이경미	21학번	1,000,000
이동만	83학번	75,000
이동원	01학번	60,000
이동원	18학번	30,000
이동철	87학번	60,000
이동훈	87학번	500,000
이민형	03학번	1,000,000
이봉섭	84학번	1,000,000
이사우	17학번	30,000
이상덕	79학번	1,000,000
이상량	67학번	300,000
이상식	79학번	90,000
이석주	79학번	8,000,000
이상배	98학번	30,000
이성조	77학번	30,000
이수연	06학번	30,000
이승권	00학번	30,000
이승재	92학번	100,000
이승조	78학번	30,000
이영도	81학번	30,000
이영주	99학번	30,000
이영화	68학번	30,000
이예지	16학번	30,000
이옥성	76학번	60,000
이윤권	80학번	30,000
이윤출	82학번	30,000
이유림	19학번	30,000
이은순	73학번	30,000
이익재	79학번	1,000,000
이장길	88학번	30,000
이재호	04학번	20,000
이재홍	88학번	90,000
이정보	15학번	30,000
이종섭	80학번	30,000
이준희	86학번	150,000
이지연	95학번	30,000
이택규	17학번	3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이하나	02학번	30,000
이환석	11학번	90,000
이혜영	91학번	30,000
이호경	91학번	30,000
이호덕	70학번	10,000,000
이화량	96학번	30,000
이후인	21학번	30,000
이화라	97학번	60,000
이희섭	86학번	60,000
이희성	89학번	30,000
임동무	61학번	30,000
임은숙	83학번	60,000
임재복	82학번	30,000
임정복	90학번	150,000
임형준	18학번	30,000
장삼환	87학번	30,000
장선호	18학번	30,000
장일범	87학번	30,000
장재혁	14학번	30,000
장지애	16학번	20,000
전금석	04학번	30,000
전별	11학번	90,000
전상철	76학번	150,000
정순자	91학번	30,000
정승화	99학번	30,000
정인용	91학번	30,000
정연우	77학번	30,000
정원수	80학번	20,000,000
정유나	15학번	1,340,000
정재민	81학번	150,000
정재원	88학번	300,000
정지훈	98학번	30,000
정휘영	98학번	30,000
정희용	10학번	30,000
제현수	97학번	30,000
조규태	72학번	150,000
조기석	02학번	180,000
조동식	69학번	30,000
조민기	91학번	70,000
조성욱	87학번	150,000
조수연	85학번	30,000
조용배	85학번	40,000
조원균	92학번	30,000
조인서	17학번	40,000
조재성	87학번	10,000,000
조종수	09학번	3,000,000
주다물	10학번	30,000
자연정	99학번	30,000
차은수	01학번	30,000
차현경	15학번	3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채미혜	98학번	30,000
천부기	97학번	30,000
최근호	87학번	30,000
최동규	77학번	30,000
최병천	81학번	30,000
최봉실	96학번	30,000
최수연	18학번	30,000
최승엽	16학번	30,000
최영규	84학번	30,000
최욱근	68학번	3,000,000
최은정	92학번	300,000
최장호	06학번	30,000
최준혁	15학번	30,000
최태원	90학번	90,000
최무른하늘	17학번	50,000
최현구	83학번	60,000
최희정	95학번	2,000,000
추기영	04학번	30,000
태현주	18학번	30,000
하상원	74학번	150,000
하석근	95학번	30,000
하정수	81학번	30,000
하준삼	15학번	314,550
한나민	18학번	30,000
한윤종	77학번	150,000
한익섭	05학번	90,000
함승연	18학번	30,000
함영준	81학번	30,000
허대건	09학번	100,000
허완	78학번	90,000
허욱	94학번	30,000
현소영	14학번	30,000
홍성재	14학번	20,000
홍영표	81학번	150,000
홍원기	94학번	30,000
홍의표	00학번	30,000
홍진표	74학번	3,000,000
홍현주	82학번	7,030,000
황승이	05학번	30,000
황윤정	04학번	30,000
황인자	74학번	30,000
황자현	86학번	60,000
황희제	16학번	30,000
Hanafy Shima Mohamed	외대교수	60,000
가정준	외대교수	300,000
고태진	외대교수	196,500
곽새라	외대교수	240,000
곽순례	외대교수	90,000
권경애	외대교수	450,000
권가수	외대교수	90,000

성명	구분	금액(원)
권영우	외대교수	150,000
권혁만	외대교수	150,000
김경희	외대교수	450,000
김동환	외대교수	2,000,000
김민정	외대교수	60,000
김봉철	외대교수	1,358,165
김상범	외대교수	405,000
김신영	외대교수	150,000
김원명	외대교수	150,000
김원호	외대교수	90,000
김유경	외대교수	542,190
김정연	외대교수	30,000
김진아	외대교수	90,000
김찬완	외대교수	60,000
김태성	외대교수	930,000
김한식	외대교수	30,000
김해동	외대교수	300,000
김형래	외대교수	90,000
김혜진	외대교수	180,000
노명환	외대교수	105,000
명희준	외대교수	150,000
문지희	외대교수	300,000
박경은	외대교수	300,000
박미정	외대교수	60,000
박정운	외대교수	3,420,000
박종찬	외대교수	150,000
박차완	외대교수	150,000
박홍수	외대교수	300,000
방교영	외대교수	360,000
송연석	외대교수	60,000
송준서	외대교수	30,000
신근혜	외대교수	595,074
신정아	외대교수	800,000
안인경	외대교수	30,000
양재완	외대직원	30,000
여호규	외대교수	105,000
윤대원	외대교수	300,000
왕석동	외대교수	20,000
유기환	외대교수	465,000
윤성우	외대교수	1,673,100
윤승영	외대교수	300,000
윤은경	외대교수	5,030,000
이근영	외대교수	105,000
이보화	외대교수	450,000
이승래	외대교수	60,000
이윤석	외대교수	600,000
이은구	외대교수	30,000
이인섭	외대교수	30,000
이재묵	외대교수	900,000
이주연	외대교수	60,000

한국의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이지은	외대교수	90,000
이지아	외대교수	1,200,000
이창훈	외대교수	150,000
이춘호	외대교수	150,000
이태욱	외대교수	600,000
이향	외대교수	834,000
이현환	외대교수	150,000
임근동	외대교수	30,000
임대근	외대교수	200,000
임소라	외대교수	937,500
임창욱	외대교수	150,000
장병익	외대교수	300,000
장은영	외대교수	60,000
정철자	외대교수	60,000
정혜연	외대교수	60,000
채성훈	외대교수	30,000
조희문	외대교수	450,000
최경일	외대교수	12,000,000
최영수(MS)	외대교수	150,000
최요섭	외대교수	90,000
한원덕	외대교수	60,000
홍석우	외대교수	700,000
홍성민	외대교수	300,000
홍종영	외대교수	30,000
황성우	외대교수	30,000
황지호	외대교수	20,000
황지연	외대교수	60,000
황우조	명예교수	60,000
박희영	명예교수	1,000,000
장실	명예교수	30,000
최재철	명예교수	30,000
유정화	퇴직교원	90,000
김미리	외대직원	30,000
김석중	외대직원	60,000
김원범	외대직원	30,000
김해정	외대직원	30,000
나경규	외대직원	60,000
박식원	외대직원	90,000
신선호	외대직원	30,000
오성석	외대직원	30,000
정용호	외대직원	150,000
홍순혁	외대직원	250,000
황순규	외대직원	300,000
김세훈	학부모	100,000
단원근	학부모	150,000
유철자	학부모	60,000
나무리디오컴퍼니(형길환)	기타(개인)	150,000
유기상	기타(개인)	3,000,000
차상석	기타(개인)	10,000,000
최광희	기타(개인)	3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재)한국외대동문장학회	동문단체	27,000,000
IT(국제무역인클럽)	동문단체	3,000,000
독일어교육과 총동문회	동문단체	2,500,000
삼일회계법인 외대동문파트너 일동	동문단체	1,000,000
외대여성동문회	동문단체	2,000,000
외영78동기회	동문단체	3,000,000
재직동문교수회	동문단체	3,165,000
한국외대 재직직원동문회	동문단체	174,000
글로벌캠퍼스 신우회	교내단체	1,000,000
외대버건교회	교내단체	1,000,000
외대재직직원장학회(씨앗)	교내단체	2,580,000
광주회관	외대사랑후원업소	300,000
(사)아름다운공동체	기타(단체)	15,000,000
(재)제이씨원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0
(재)홍원재단	기타(단체)	18,000,000
공군사랑부	기타(단체)	8,437,000
남장장학재단	기타(단체)	10,0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서교회	기타(단체)	1,500,000
다라이트렌즈	기타(단체)	4,036,500
롯데장학재단	기타(단체)	64,000,000
미래에셋박원주재단	기타(단체)	38,000,000
미래의동반자재단	기타(단체)	3,360,500
미래인재육성재단	기타(단체)	7,866,500
사단법인 위드스문화	기타(단체)	1,000,000
산학협동재단	기타(단체)	3,360,500
상성복지재단	기타(단체)	35,810,000
삼승장학회	기타(단체)	1,800,000
송화재단	기타(단체)	4,000,000
신라문화장학재단	기타(단체)	1,800,000
아산사회복지재단	기타(단체)	15,000,000
인촌기념회	기타(단체)	5,460,500
일주학술문화재단	기타(단체)	10,081,500
재단법인 김준기재단	기타(단체)	17,478,500
재단법인 문숙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1,500,000
장수장학회	기타(단체)	24,513,500
한국지도자육성재단	기타(단체)	8,221,000
해성문화재단	기타(단체)	10,081,500
한마음재단	기타(단체)	27,398,000
(재)동원육영재단(동원그룹)	기타(기업)	100,000,000
(주)다우기술	기타(기업)	13,615,000
(주)세이브	기타(기업)	6,000,000
(주)센애드	기타(기업)	7,875,000
(주)세인지포인트	기타(기업)	18,300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기타(기업)	7,000,000
이모레원주제일 (송효섭)	기타(기업)	30,000
에이스관세법인	기타(기업)	1,000,000
윤연최오테크	기타(기업)	6,000,000

기부 혜택

외대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기부자 예우

구분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념품 제공	○	○	○	○	○	○	○
학교 발간 홍보물 제공	○	○	○	○	○	○	○
기부증서 증정 및 영수증 발급	○	○	○	○	○	○	○
평생 차량출입증 제공		○	○	○	○	○	○
외국어 연수 평가원 수강료 본인 및 직계가족 30% 할인		○	○	○	○	○	○
감사패 증정			○	○	○	○	○
평생 도서관 열람증 제공				○	○	○	○
대천수련원 이용시 교직원에게 준한 예우				○	○	○	○
출 명칭 동판 부착					○	○	○
홍상 부조 부착							○

● 세제혜택

1. 개인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① 기부금 기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 자동 신고

방법 ②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2. 법인기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이월결손금) X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며,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만원)	세율(%)	예금주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방법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3.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중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문의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전화) 02-2173-2756 (이메일) hufs5@hufs.ac.kr

QS 세계대학평가 평판도 설문위원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영국의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QS社(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는 전 세계 2,000여 개 대학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여 매년 6월 세계대학평가 결과로 1,000여 개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는 약 40여 개 대학이 본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경우,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과 우수 교원 확보 및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의 주요 지표로는 대학 평판도, 교육여건, 연구성과, 국제화 지표가 있으며,

이 중 평판도 설문 결과를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하여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합니다.

학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국내·외 대학을, 산업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업무 분야에서

채용을 선호하는 국내·외 대학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합니다.

현재 2024년 평가에 참여해 주실 설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설문 위원으로 등록하실 경우, 제출하신 이메일 주소로 2024년 1~2월 중에

QS에서 직접 대학 평판도 설문조사 링크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외대 가족 여러분들의 설문 참여 하나하나가 우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설문위원으로 등록하시어 소중한 의견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계평판도 설문위원 등록
(국내·외 교육계 인사·교원 등)
◆상시 등록 가능



산업계평판도 설문위원 등록
(국내·외 산업계 인사·직장인 등)

◆문의 : 기획조정처 평가감사팀(02-2173-2027)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



한국외국어대학교



Global HUFS 118